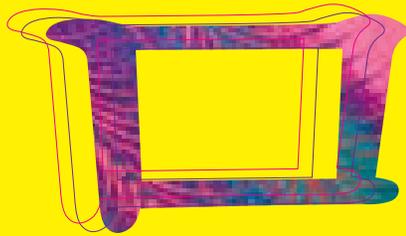




2010.01 Vol. 210 January





Contents

2010. 01 Vol. 210 January



02	신년사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04	칼럼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과 과제
08	한지봉 한술밥	증로문화원
12	2009 향토사 대중화 사업	
16	문화복덕방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18	새해맞이	호랑이, 산중군자 그 경외의 대상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22		한국의 부적
26		설과 정월 대보름의 세시미학(歲時美學)
30	책 수집가 안정응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34	인식의 전환_기업문화	기업문화의 의미 그리고 변화와 추이
37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를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42		기업의 문화마케팅_ 차별화된 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해
46	한국의 예절	예절이란 무엇인가?
54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문화소식
60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인명 권호환(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 김
정관주 서구문화원장 | 박덕규(단국대 교수) | 한춘선(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코 028332-7924 | 인쇄 태형 세인파 02228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택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사진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요청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1세기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문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문화원을 거점으로 생활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문화나눔을 실천, 미래사회의 희망을 이끄는 힘이 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응비하는 힘찬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1세기를 맞아 문화는 더욱 폭넓은 창조력으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 강화 및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미래 문화국가를 향한 발디딤을 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한해 대한민국 문화 흐름의 '脈'을 짚어 다각도의 발전적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국고 및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인 여가문화 개선을 선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발굴·확산에 앞장선 '향토사 대중화 사업', 이주민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전국민의 문화향수권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7개 문화원이 시행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첫째, 다양한 노인문화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전 세대가 나이를 잊고 문화로 소통하는 '제1회 나이 없는 날'을 최초로 선언, 개척함으로써 주요 언론사 보도를 통해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인구 2%에 달한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그들과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을 시행,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민과의 이해 증진 도모에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향토사 대중화사업'으로 우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부터 5년간 진행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전국 총 13개 마을이 문화·예술·역사가 살아숨쉬는 활력넘치는 마을로 재탄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역사마을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향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밖에 문화으로 공감하는 전국 창작시 공모전, 현대 문화 자산의 핵심인 인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과 국악방송 주관 전국품물경연대회 등을 후원함으로써 주민밀착형 문화,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문화로 생동하는 정부의 기초와 함께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에 목표를 두고 힘차게 달려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문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문화원을 거점으로 생활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문화나눔을 실천, 미래사회의 희망을 이끄는 힘이 됩시다.

문화는 누구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지역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항상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전국의 문화를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기틀을 만들어 갑시다. 문화나눔, 문화도시, 문화경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더욱 진일보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향과 과제

결국 문화원은
모든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호흡을 나누는 공동체이며,
그것도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꿈꾸는 문화공동체의 대표적 공간이다.
유일한 문화공동체라는 불필요하고 권위적인 독점욕은 이미
지구와 아시아와 한반도라는 공동의 고향에서 사라졌다.
인간의 삶에 풍요를 더해 준 겨울 낙엽의 타는 향기,
자연의 생명체가 뿜어내는 원초적 향기와 함께 연기로 산화되었다.
즉 문화공동체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수요는 경험에 의해 유발되고 증가된다. 문화예술적 표현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수요 개념이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문화원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선투자된 문화복지기관이다. 1947년 5월에 자생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계몽활동을 전개한 함양문화원에서 출발하여,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원이 문화기관이라는 정규 궤도에 올랐다. 1994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원이 법률 명칭에 명기되었다.

이 시기는 문화원장들의 의지와 열의가 반영되어, 법률이 탄생한 것과 맞물려 문화원의 제1의 전성기가 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1994년)이 지방문화사업조성법(1965년)을 대체하면서 문화원의 누적 개수가 1980년대의 131개원에서 205개원으로 늘어나 활발하게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문화원은 현재 전국에 227개가 분포되어 있다. 제1의 전성기가 문화원장들의 의지에 기초했다면 제2의 전성기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축진 세력으로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비롯한 상근 문화매개자들은 약 515명이다. 이들은 문화원의 의미 독해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환경과 분투 중이다. 또한 회원은 약 12만여 명이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구성원들은 제2의 전성기를 예감하고 현실적으로 문화활동의 도약을 추진하는 문화적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서로 앞 다투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고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원의 구조적인 경쟁력으로는 지역문화발전을 지향하는 공통의 사명으로 뭉쳐 있는 전국의 227개 문화원의 조직망이 손꼽힌다. 그 어떤 조직망에 비해서도 역사성이나 문화성, 행동력, 지역주민의 정서적 지지 등의 측면에서 앞서있다. 게다가 법적 근거와 지역에서 발언권이라는 참여성을 인증 받은 문화적 지도자 그룹이 포진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원의 정체성

문화원은 문턱이 아주 낮아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드나든다. 문화원의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사업은 특정 계층을 겨냥하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화원의 문화적 파워를 소리 없이 이끌어가는 사무국장들의 영혼과 기획의 이중주는 자신들을 위한 단순한 영업행위에는 저항한다.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향유에 뜻 깊은 목숨을 걸고 있다. 그 어떤 지역주민의 출입도 금지하지 않는다. 그 결과 21세기 경쟁사회가 생산한 부산물인 차별과 소외라는 흔적은 문화원의 계단에도 벽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썩어이 썩어인 발자국들이 차별과 소외를 막는 면역체가 되고 있다.

게다가 문화원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예술적 소통과 체험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이다. 그래서 문화적 삶과 문화적 인간관계와 문화적 감동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모여져, 지역의 생생한 문화사를 기록해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현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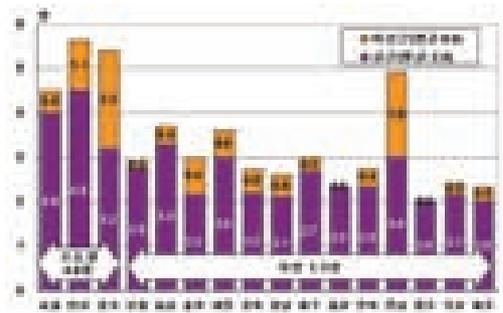
되고 있다.

결국 문화원은 모든 지역주민과 짧으면서도 긴 호흡을 나누는 공동체이며, 그것도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꿈꾸는 문화공동체의 대표적 공간이다. 유일한 문화공동체라는 불필요하고 권위적인 독점욕은 이미 지구와 아시아와 한반도라는 공동의 고향에서 사라졌다. 인간의 삶에 풍요를 더해 준 겨울 낙엽의 타는 향기, 자연의 생명체가 뿜어내는 원초적 향기와 함께 연기로 산화되었다. 즉 문화공동체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원의 지역문화에 대한 기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문화원이라는 문화의 메카들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의해 결집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08년부터 문화원상을 고안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 회원을 증대시킨 우수 문화원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자율적인 격려를 시작했다. 지역문화에 대한 헌신을 격려하는 수상제도는 헌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무형유산이 될만한 경축의례의 역사적 출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잔치는 문화원 가족들만의 잔치로서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원의 활동을 전승시킬 수 있는 의례로서의 무형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원은 연간 향토자료조사 수집 등 간행물을 약 300종 이상 발간하고 있어서, 1개 문화원당 1개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것도 작은 성과는 아니다. 또한 지역 축제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체 중의 주체로서 축제 별로 국내·외 관광객 10만 명 정도의 참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2007년 전수조사 기준으로 상근 직원 2.9명, 비상근 직원 0.9명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효과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수확이다.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방안 연구, p.162

또한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교육 체험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문화교실에서는 한국무용, 장구,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명심보감 체험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예술문화교실에서는 연극, 사진, 시창작, 산수화, 문인화, 서양화 등의 강습이 이루어지며, 음악교실에서는 바이올린, 기타, 하모니카, 플루트의 연주와 노래교실 등이 열리고 있다.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화교실들이 그다지 질이 높지 않은 판에 박힌 듯한 강습으로 지역주민들을 문화초보자로 만든다는 비판도 하지만, 초보자의 단계와 초보자의 역사는 문화예술에 진정으로 눈을 뜨는 첫 과정으로서 그 어떤 중요성에 비견할 수가 없다.

특별히 지방문화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버세대를 겨냥하여 현실적인 수요와 비전에 입각하여 실버문화학교를 추진하여 전국 100개 문화원에서 실버문화학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버문화축제가 열린 2008년의 전주에서는 2만여 명이 성황리에 축제를 즐겼고, 실버문화학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결과 2008년에는 10억원의 소득을 거두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지역주민 중에서도 실버세대를 겨냥하여 그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경제적인 수요마저 도외시 하지 않는 문화원의 포용력 있는 관점은 지역주민의 문화공동체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양적 규모가 아닌 내적 성숙을 통해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할 문화원

경제적 가치를 문화적 가치의 상위에 놓는 보통의 주변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뛰어간다. 그러나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지킴이들의 산실이다.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문화복지사 혹은 문화전파사로서의 내적 선언과 사명을 되새김질 하는 경력직 사무국장들이 그 지킴이의 선두에 있다. 고가의 티켓이나 문화엘리트들의 현란한 예술적 표현에 손발 놓고, 낯을 놓고 바라보고 듣기만 하는 수동적 문화 매니아가 지역과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문화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손과 발짓, 영혼 짓을 표현하고 배워나가게 될 것이다. 문화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이다.

압도적인 문화예술의 무게로 관람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표현하게 만드는 작지만 알찬 소극장 운동과 문화예술 체험의 전진기지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극적인 관람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때, 문화원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발전소가 될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문화원 사무국장들이 노출하고 있지 못한 눈물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표현의 언어가 되고, 몸짓이 되어 꽃다발로 결실을 맺을 날이 머지않았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문화사업비의 선투자는 문화원 지도자들의 조직망, 발언력, 정부의 결단이라는 톱니바퀴의 맞물림에 의해 충분히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연구원

문화일번지 종로에 자리 잡은 종로문화원은
1994년 12월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문화원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심장부 종로에 위치해 있다.

종로를 대표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관할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

각종 작품전시와 발간사업, 지방문화탐방,

종로문화대학, 역사문화탐방교실,

찾아가는 문화활동(종로노인종합복지관 송년위문공연),

향토문화콘텐츠사업(내고장 문화재 바로알기) 등

작은 규모에서도 큼직큼직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뤄낸 것보다 이룰 것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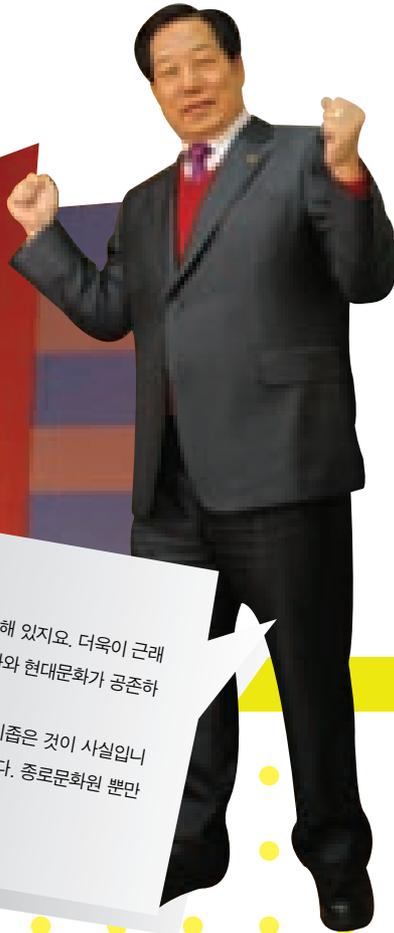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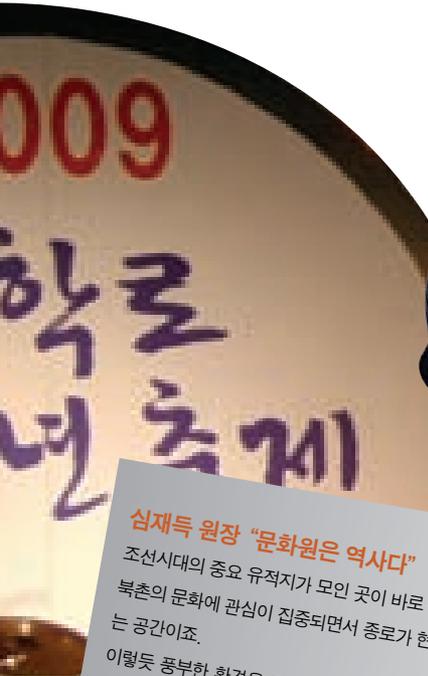
실력을 하루에 한 뼘씩 더 키워내려고 노력한다는

종로문화원이다.



우리는 문화패밀리 종로문화원





심재득 원장 "문화원은 역사다"

조선시대의 중요 유적지가 모인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많은 유적지가 산재해 있지요. 더욱이 근래 북촌의 문화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종로가 현대문화의 근거지가 되니, 옛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죠. 이렇듯 풍부한 환경을 두고 있지만 현재의 원사로는 우리의 꿈을 펼치기에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사 이전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종로문화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문화원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최용주 사무국장 "문화원은 역사의 보고"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것들이 종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문화원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미비하지만 곧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지방 문화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을 유입하고 또 양성하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직원 박도준 "신나게 일하는 일터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종로구청에 지원했는데 이곳에 오게 되었죠. 신나는 일이 많은 곳이에요. 재미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 또 생길까 기대 해요.



직원(간사) 김미정 "문화원은 가족이다"
 우리 문화원은 직원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까지 한 가족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지 7년이 되었는데 수강생분 중에 5-6년 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안 친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실 때도 가족 같았지만 지금 오지 않는 분 중에도 연락하시면서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지요.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직원 김미선 "문화원을 알리자"
 사무보조를 맡고 있어요. 종로문화원에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근무 이전에는 문화원이라는 곳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이곳에 오고서야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문화원을 널리 알리려서 문화원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이용하셨으면 해요. 상황이 열악한 데도 모두들 즐겁게 일하세요.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해봅니다.

2009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지역의 고유문화인 향토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향토사대중화사업' 이 벌써 3년째를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딱딱하고 어려운 향토사를 대중화 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유독 어려웠던 것은 참여 대상과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사업 진행에서 느꼈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향토사대중화사업 진행에 있어
우리회가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참여 대상이다.
그동안 일반인이 느껴왔던 향토사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면서 발랄함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에서
사업 참여 대상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계층 가운데서
본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지역의 청소년들이다.



성과와 한계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의욕이 지나치게 앞선 경우가 있다. '향토사대중화사업' 역시 너무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지역 현실을 감안한 사업 방향이나 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사업 초반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진행에 있어 우리회가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참여 대상이다. 그동안 일반인이 느껴왔던 향토사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면서 발랄함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에서 사업 참여 대상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계층 가운데서 본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지역의 청소년들이다.

기성세대를 위한 교육 보다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향토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다. 어린 시절에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지역을 떠난 뒤에도 지역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

역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태어나 자랐던 지역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린 시절에 향토사에 대한 교육 부재가 나오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보다 강화하였다. 교육 방법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였다.

가령 아이들이 연구자가 되어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고, 뮤지컬 배우가 되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표현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토사기는 물론, 교사와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켜 교육의 질을 보다 강화하였다.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 추진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미 31개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되었다. 강사와 교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향토사를 교육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향토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자료와 만화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문화원의 경우도 적지 않다. 곳곳에 숨겨진 농기구를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여 다른 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는 문화원도 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는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15개 문화원이 참여한 4대강 유역의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우리의 강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문화원의 사정에 맞게 개설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의 문화는 단순히 강과 관련된 문화이론 교육 이외에 강과 관련된 자



연생태, 포구와 장시, 시대별 강 의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와 민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사업 종료에 시점에 맞춰 청소년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전시회와 교육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 종합 발표회가 그것이다. 네이버에는 '향토쟁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향토문화대중화사업'

'향토사대중화사업'은 지역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토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향토사와 친해지고, 지역 문화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토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토문화의 생활문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회에서는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하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그러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민의 출발이 단순히 대중화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통해 우리 문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향토사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향토사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일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향토사대중화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향토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향토사를 접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생활형 향토문화의 체험과 함께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겠다.

이를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지방문화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태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임

향토사대중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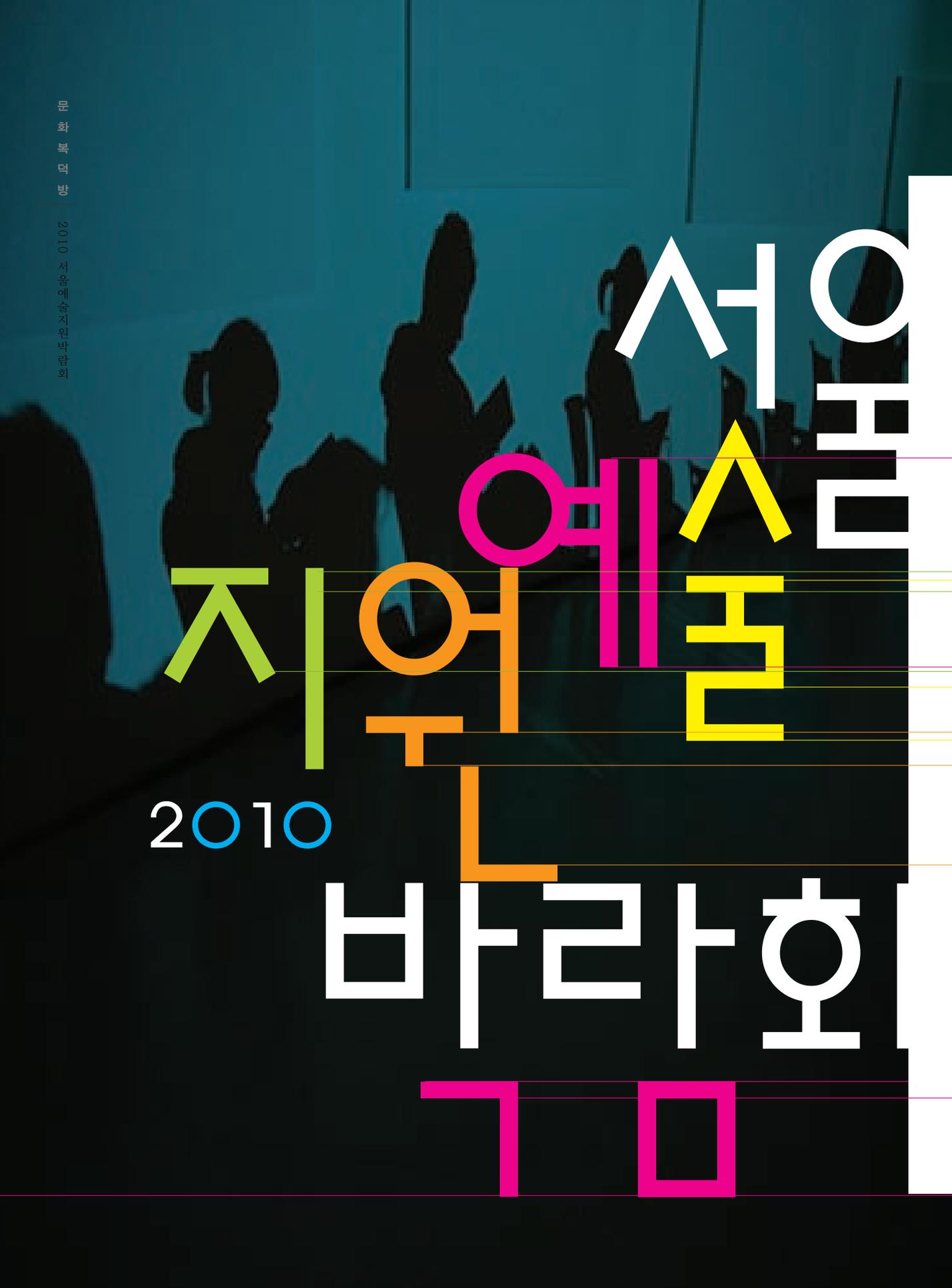
번호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유형
1	서울 (5)	송파	청소년 한강유적탐사대	
2		성동	움니버스 역사연극 (십리를 기면 무지개 마을 성동이요)	문화예술
3		관악	그림으로 표현하는 관악산의 사계	문화예술
4		동대문	향토사 소재 단편영화제작 상영	문화예술
5		서대문	60년의 발자취 서대문 언제오늘 시디 사진집 제작	조사, 발간
6	대구 (1)	동구팔공	한국전통문양예술학교 -천년의 역사속으로-	교육, 체험
7	인천 (2)	서구	청소년을 위한 향토유적 길라잡이 "두박두박 역사 속으로"	교육
8		연수	2009 인천의 숨은 명인을 찾아서 / 향토문화지도가 있는 문학속의 인천	조사, 콘텐츠
9	광주 (1)	동구	옛 광주읍성따라 걸으며 광주의 근현대 조명	교육, 현장체험
10	경기	성남	향토사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내고장 성남 비로알기 교육	교육
11		구리	우리 고장에 잠들어 계신 근현대 위인들은 어떤 분들일까?	교육, 현장체험
12		의왕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향토문화교실	교육
13		군포	군포설화 청소년 영어 연극 / 마당 나온 김투봉 명당 싸움	문화예술
14		과천	과천향토사 100배 즐기기	교육, 체험
15	강원 (2)	평창	옛길에서 문화를 찾는 문화지킴이	해설사 양성
16		정선	영동에서 영서까지 장길 따라잡기	교육
17	충북 (1)	괴산	향토사 교육자료제작 및 청소년향토사 교육-괴산지역 수운과 구국문화를 중심으로-	교육
18	충남 (1)	성환	청소년 마을 해설사 양성사업	해설사 양성
19	전북 (3)	임실	헛간 속에 숨겨진 민속품 찾기	교육, 조사
20		순창	청소년 마을 해설사 양성사업	해설사 양성
21		남원	남원향토 9산 9城과 함께 해 온 9설화 9전설	교육, 체험
22	전남 (4)	구례	교육현장에 향토사 강사 파견 및 근대화시기 우리고장의 생활상 조사 및 기록	교육, 조사
23		해남	우수영城 이미지 통합개발 사업 누리들의 울돌묵	콘텐츠
24		곡성	어린이 연극비비야 내려라 / 곡성중앙초교 100년 역사를 찾아서(다큐멘터리)	문화예술콘텐츠
25		강진	탐진강 원류를 찾아서	해설사 양성
26	경북 (3)	구미	숨겨진 명인들의 구술생애사-선주골과 금요골의 명장	자율사업
27		청송	청소년 마을해설사 양성사업	해설사 양성
28		영주	조사 발굴보존전승 및 순흥지역 청소년 마을해설사 양성사업	해설사 양성
29	경남 (3)	하동	삼진강유역의 역사와 문화이해	교육, 체험
30		김해	예술통합 김수로왕	문화예술
31		산청	교육 현장에 강사파견 -산청비로알기	교육, 체험

4대강 유역 향토사대중화 사업

구분	강	문화원	주요 교육 내용
1	한강	강동	강과 함께해온 강동의 역사 / 선사시대 체험하기
2		원주	근현대시기의 강사람들이야기 / 원주의 강 문화재
3		여주	선사시대 체험 / 남한강 생태조사 / 신록사와 남한강 이야기
4	금강	익산	금강을 따라 개설되려던 호남선 철길 이야기 / 금강변을 거닐며 역사문화배우기
5		논산	강경포구에 담긴 문학이야기 / 금강의 어제와 오늘
6		부여	금강현황이론, 체험, 민속놀이, 발표회
7		조치원	금강에 대한 이해 / 강변문화유산과 지역문화
8	낙동강	문경	낙동강 발원지 / 강을 통한 집산물과 보부상
9		인동	낙동강 사람들의 이야기 / 낙동강의 민속놀이 체험 등
10		김천	강변문화 심화교육 / 강변천 마을지명
11		청도	낙동강 지류 따라 걷기 / 사찰문화
12		함안	낙동강 변천사 / 교통과 교역 / 처녀뱃사공 사생대회
13		합천	오광대 탈춤 교육(제작, 공연)
14		창녕	낙동강 유역 조사 취재 / 낙동강변의 변화
15	영산강	목포	강사람들의 노래 / 유역 특산물에 얽힌 이야기



서예
 예술품
 지식
 권역
 2010
 바라호
 기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 개최

지난 12월 7일 2010 서울예술지원박람회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에서 열렸다. 문화와 예술지원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각 부스에서 열린 상담과 포럼, 컨설팅,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문화예술 박람회로서는 최초의 박람회였다.

예술지원정보존의 서울문화정보관, 기업예술지원관, 국제예술교류지원관, 공공부문예술지원관을 비롯하여 예술경연 컨설팅존과 사회적기업육성존 등 많은 부스가 열렸으며 역량 있는 예술가와 60여개의 문화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교류가 눈에 띄는 자리였다.





호랑이 산중군자 그 경외의 대상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는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해는 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 갑인(甲寅)의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한다. 특히 경인년은 호랑이 중에서도 백호(白虎)에 해당된다. 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령(西白虎)으로 민속에서는 상상의 동물로 묘사한다. "백호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영물이다. 하지만 지도자가 악행을 저지르거나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많아지면 광포해진다", "백호가 나타나면 권력자는 몸을 낮추고 부자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산전수전 겪은 호랑이가 세상 이치를 깨달으면 털이 희게 변한다"고 한다.

세계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각 동물은 저마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 물고기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년 연하장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각 가정마다 손을 들어 복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품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육당 최남선의 말대로라면 '호랑이 나라'로 전통문화 어디에서도 호랑이 모습이 나타난다.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호랑이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호랑이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우정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인류의 대제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능률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

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꿀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았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이야기 속에는 의례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에게는 물론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꿀탕 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호랑이가 설화에 있어서는 영웅, 특히 건국시조의 수호자로 등장하고 있다.

처음에 견훤이 아직 포대기 속에 싸여 있을 때이다. 그 아버지는 들에서 밭을 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 주려고 어린 아이를 나무 밑에 놓아두었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자 모양이 웅장하고 기이하며 뜻이 커서 남에게 얽매이지 않아 보통 사람과 달랐다.

호랑이는 후백제를 건국할 견훤의 인물됨을 미리 알아보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건국시조들에게 나타나는 호랑이의 보호는 보다 적극적으로 작용하는데, 왕건과 이성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호경(虎景) 성골장군(聖骨將軍)이 평나산 마을 사람 아홉과 더불어 매사냥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바위굴에서 자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호랑이가 나타나 장군의 모자를 잡아당겨 장군이 나아가 싸우는데, 굴이 무너져 모두 죽었다.

이태조의 고조부인 목조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남천 가 큰 바위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 큰 범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옷을 하나씩 던지자 범은 목조의 옷을 물었다. 목조가 나서자 바위가 갑자기 붕괴되고 호랑이는 사라졌다.

이성계가 어려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호랑이 굴속에 들어갔다. 이윽고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자 아이들이 제각기 옷을 던져 호랑이가 선택하는 옷의 입자가 나가서 호랑이의 밥이 되기로 하였다. 호랑이가 이성계가 던진 옷을 발로 짚자, 이성계가 굴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 순간 굴이 무너져 다른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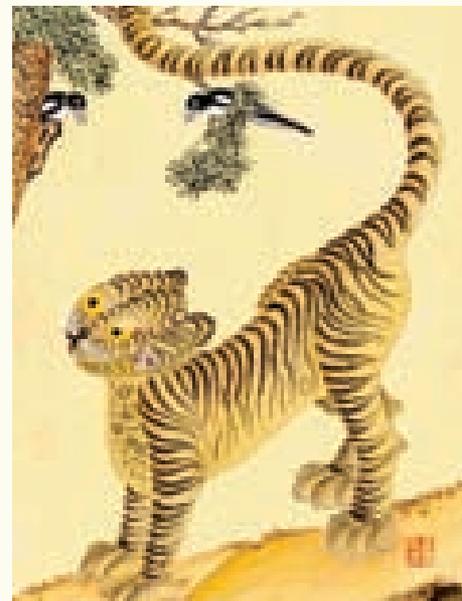
이들은 모두 죽고 호랑이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호랑이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이들은 모두 당대의 영웅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유신을 비롯하여 견훤, 왕건, 이성계, 광재우 등은 모두 장군이거나 한때 장군이었던 인물들로 호랑이의 도움을 받았다. 호랑이는 효의 수호신 겸 후원자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한성에 사는 박씨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친을 잃은 뒤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선친묘에 참배하였다. 선친묘로 가는 어느날 박씨가 재를 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박씨가 자신은 선친묘에 가야한다고 호통을 치자 호랑이가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선친묘까지 와서 안전하게 박씨를 내려 주었다. 집으로 올 때도 이와 같이 하여 삼년동안 계속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집안 사람들이 그 옆에 묻어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박씨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효를 실천하려고 하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3년간의 시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박씨가 죽게 되자 호랑이도 그를 따라 죽음으로써 인간적인 의리도 보이고 있다.

범띠의 인성은 호랑이의 성정(性情)과 무척 닮았다고 한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으로 모든 동물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이 남의 밭에 들기를 싫어하며 지기도 싫어하는 쾌기만만한 성격과 통솔력이 강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자신만만





한 호랑이의 성격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쫓던 먹이를 놓치는 호랑이처럼 능력을 과신하여 실패를 부르기도 한다. 범띠생의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면 두 배로 보답할 것이라는 풀이는 설화 속에서 은혜 갚는 호랑이 이야기와 같은 유형이다

유독 여성에게는 범띠의 인성이 부정적으로 적용된다. 열두 띠 가운데 범띠, 용띠, 말띠 등으로 태어난 여성은 범, 용, 말의 성정을 이어받아 거칠고, 크고, 억세다고 여긴다.

이런 성정은 이른바 우리 고유의 여성 관념과 맞지 않아서 꺼리는 경향이 때문인지 '범띠 가시내'라는 유행가처럼 범띠 여성은 팔자가 세다는 속설이 있다. '범띠가 있는 집안은 짐승이 안된다' 거나. '호랑이 띠끼리 만난 부부는 금실이 좋지 않다'고 한다.

수컷은 자신의 영역내 암컷의 오줌 표식 냄새와 포효 소리로 발정기의 암컷을 찾아낸다. 만약 암호랑이가 교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암컷은 매우 공격적이 된다. 그러므로 교미하고자 하는 수컷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추어 선다. 일반적으로 이들 암컷과 수컷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이들의 영역은 서로 겹쳐 있고 정기적으로 냄새와 소리로서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에게 접근할 때 수컷은 매우 조심스러워 하며, 한 번 다가설 때마다 일정 시간 앉아 기다린다. 발정기 동안 암컷은 수컷에게 매우 도도한 태도를 보인다.

비록 몸집이나 힘으로는 수컷 호랑이가 월등히 강하지만, 자신

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수컷은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며 암컷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자 애쓴다.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 띠끼리 만난 부부는 금실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암컷이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수컷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해 된다.

호랑이의 교미는 줄기차고 집중적이다. 매회 교미시간은 1분도 되지 않게 극히 짧으나 횟수는 매우 잦으며 때로는 하루에 수 십회씩 며칠에 걸쳐 수 백회의 교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동안은 먹지도 않고 오로지 교미만 한다. 이것은 호랑이 암컷의 배란이 유도배란이라고 하여 일정 횟수 이상의 교미가 있어야만 배란이 되고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미 기간 동안 암컷은 또 다시 공격적이 되기 쉬우며, 특히 매 교미행위 후 수컷에게 앞발을 힘껏 휘두르며 공격하기 때문에 수컷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발정기가 끝나면 수컷은 미련 없이 제 터로 발길을 돌린다. 교미 103일 후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1-6마리, 보통은 2-3마리를 낳는다. 암컷이 출산해도 수컷이 와서 새끼를 위해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새끼 키우는 일은 순전히 암컷의 몫이다. 호랑이 어미는 모성이 매우 강해 자식을 지극 정성으로 키운다.

새끼는 처음 한 두 주일 간 눈도 못 뜬 채 걷지도 못한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외출한 사이에 저항력이 없는 새끼들은 곰 등 다른 동물에게 잡아 먹히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형제간 먹이 경쟁에서 밀려 굶어 죽는 수도 있다. 생후 3-4개월이면 어미를 따라 외출하고, 2년 후면 독립한다. 이때까지 무사히 성장할 확률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일단 독립할 나이가 된 새끼는 어

미에게도 냉대를 받게 된다. 되도록 어미 그늘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지만 어미는 냉혹하게 쫓아 버린다. 딸의 경우 어미가 자신의 영역 일부를 내어 주기도 하고 간혹 이웃한 가족끼리 만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랑이는 새끼를 키울 때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범띠는 자식 복이 없다'고 한다. 호랑이는 야행성(夜行性)으로 황혼이나 밤, 또는 새벽에 사냥을 한다. 야행성 포식자인 호랑이 청각과 시각은 특별히 발달하였다. 두 귀는 먹이동물의 자그마한 움직임 소리도 포착할 수 있다. 망막에는 명암을 구별하는 간상세포가 많고 희미한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있어 야간 시력이 뛰어나다. 호랑이는 이런 눈과 귀를 이용하여 밤사냥을 한다. 호랑이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기백과 기상을 뽐낼 수 있다. 그래서 '호랑이 띠 남자는 밤중에 낳은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 반대이다.

호랑이 세계에는 승자독식(勝者獨食·the winner takes it all)의 원칙이 엄격하다. 수컷 호랑이 '센 놈'이 자신의 영역 내 암컷을 독식한다. 호랑이는 엄청난 정력가이다. 그래서 '호랑이 띠 남자가 12월이나 1월생이면 바람기가 있거나 소실을 든다'고 한다. 실제로 아무르호랑이의 번식기는 12월에서 1, 2월 까지도다.

지금 한국에서 자연생태 속의 호랑이를 실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호랑이에 대한 관념은 지금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호랑이를 강인하고 진취적인 시민기상을 의미하는 지역 상징동물로 삼았다. 대학가에도 호랑이는 살아 으르렁 거린다.

고려대학교 안암골 호랑이는 용기, 결단, 민활, 위엄을, 한경대학교 호랑이는 자유, 진리, 용맹, 인내심, 개척정신을, 경주대학교 쌍호는 민족대학으로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하자 하는 의지를, 대구대학교 비호는 큰 뜻, 높은 이상을, 배재대학교 호랑이는 친근함, 기백, 용감을 상징한다. 표범은 전북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학교 상징이다. 맹호부대, 백호부대, 용호부대, 표범부대, 흑표부대는 호랑이와 표범처럼 용감하다. 용맹성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군대의 표상물로 호랑이는 제격인 것이다. 호랑이는 현대 도시와 백화점에서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다. 상품이나 회사의 등록상표 가운데 호랑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용맹성·권위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동물상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띠 가운데 상표로 가장 선호되는 동물은 무엇일까?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호랑이·말·용이 가장 인기가 많고, 쥐·뱀·원숭이는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 12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보면 △1위는 신통력을 지니고 영물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286건 △2위는 생동감을 표현하는 말이 148건 △3위는 권위적인 용이 82건...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통력·용맹성·권위·상서로움을 나타내는 동물과 부(富)·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을 선호하는 반면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물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띠를 소재로 한 선호도 상위 5위까지의 상표를 살펴보면 호랑이의 경우 캐릭터거울 판매업인 '꼬마호랑이', 도마·소반 등을 판매하는 '봉쥬까지호랑이' 등이 있고...

(이정은 기자, 창업경영신문, 2007/07/05)"

실제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검색 결과 2009년 7월 31일 현재 호랑이 디자인은 134개, 호랑이 상표는 1,386개가 등록되어 있다. 호랑이 디자인의 경우 장난감의 완구류, 장식장신구, 의류, 기념품 등이 많았다.

호랑이 상표는 스포츠, 기업, 주류 등과 관련이 많다. 호랑이는 숲을 나와 이제 마을로, 도시로 진출하여 거리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 속에 우리나라 호랑이는 어느 하나에도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위엄 있고, 신령스러우며, 해학적이고 인간미 넘친다. 친근하고 따뜻한 이런 표정들이 바로 우리 호랑이이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마음, 즉 슬기·의젓함·익살을 담고 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문학박사)

부적(符籙)은

종이에 글씨나 주술적 기호 등을 그리거나 목판으로 찍어낸 것으로, 그 목적은 복을 불러 들이고 액운(厄運)을 물리치는 데에 있다.

오구삼살방(汚垢三煞方)은 불길하고 더러워지기 쉬운 사악한 행위나 행동을 말함인데, 이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주술적 힘을 가진 물건을 부적이라고 부른다.

부적에는 종이부적 뿐만 아니라 뼈, 기석(奇石), 나뭇가지 등의 물건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이 또는 입체부적을 이용하는 주술적 방법은 인간사의 복잡다난한 길흉(吉凶)을 관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문이다. 단순히 그리거나 찍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고 일정한 의식을 행한 후에 제작된 부적이 효험이 생긴다고 믿었다.

부적을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녀 백운을 수호하려는 인간의 믿음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신앙에 예술이 공존하고 있는 부적은 평범하면서도 주술적 신비가 담겨 있다.

우리의 역사와 공존해 온 부적은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데, 사람의 키보다 더 큰 탐다라니부적에서부터 작게는 2~3cm 정도의 호신부적, 선추부적(扇錘符:부채에 매다는 부적), 호패부적(號牌符) 등이 있다.



한국의 부적(符籙)

◎ 소원성취 부적(所願成就符)

부적은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邪), 귀(鬼)를 물리치거나 방어하는 벽사용(邪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주력의 힘을 빌어 좋은 것을 더욱 일으키는 소원성취 부적이 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염원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차공덕(以此功德) 왕생극락(往生極樂)', 즉 살아서 공덕을 쌓아 사후 극락 세계를 기원하였고, 수복강령(壽福康寧), 부귀다남(富貴多男) 오래살고 자식을 많이 낳아 행복해지기를 기원하였다.

소원성취 부적의 종류에는 소원성취부(所願成就符), 가택안녕태평부(家宅安寧太平符), 재수대길부(財數大吉符), 만사대길부(萬事大吉符), 관직부(官職符), 합격부(合格符), 정토왕생부(淨土往生符), 옥추영부(玉樞靈符) 등이 있다. 주력의 힘을 빌어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민간신앙(民間信仰) 깊숙한 곳에 크게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삼재부적,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대체로 남성의 경우에는 학문을 이루어 과거에 급제하여 고귀한 신분이 되는데 중점을 두었고, 여성은 부부가 화합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아들을 낳아 잘 기르기를 기원했다. 그 예로 조개부적이 있는데, 조개의 모양이 여성을 상징하여 풍요와 다산(多産)을 의미한다. 현재에서는 물질적 풍요를, 사후세계에서는 극락왕생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매년 정초에 '壽', '福' 글자를 찍어 나누어 가져 대문이나 기둥에 거꾸로 써붙였다는 기록이 있다. 장수를 염원하는 도교(道敎)의 영향과 사후세계를 믿는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합되면서 형성된 소원성취 부적은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이 담겨 있다.

◎ 액(厄)막이 부적

일명 벽사 부적이라고도 부르는 액막이 부적은 종류가 가장 많고, 생활전반에 걸쳐 다채롭게 쓰였다. 민간신앙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움, 질병이나 재화를 막기 위해 부적을 만들어 이를 예방·퇴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살(煞)이 끼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 공교롭게도 큰 탈이 날 때 귀신이 끼었다고 믿어 이를 사전예방 하려

는 행위를 말한다.

막이 부적의 종류로는 질병퇴치부(疾病退治符), 귀신불침부(鬼神不侵符), 야수불침부(野獸不侵符), 호신부(護身符),



제귀자멸부,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호랑이 발톱과 이빨,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악몽 퇴치부(惡夢退治符), 도적불입부(盜賊不入符), 전쟁피하는 부적(避兵符)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질병과 귀신퇴치에 관한 부적이 가장 많다. 질병에는 눈병(眼疾), 학질과 같은 돌림병, 즉 전염병을 비롯하여 난산부(難産符)와 같이 출산할 때 사용하는 부적까지 다양한 치료법과 부적이 있다. 의학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부적이 힘을 빌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액막이 부적이 글씨나 추상적 형상, 상상의 동물, 문양 등을 붉은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쓰거나 목판으로 찍어낸다. 경면주사의 붉은색은 귀신을 내쫓는 힘을 가졌고, 피(血) · 불(火)과 대등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생명과 감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귀신이 싫어하는 나무에 귀신이 싫어하는 붉은색 또는 황토색으로 만든 부치는 신비스런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산신(山神)으로도 일컬어지는 호랑이의 발톱, 이빨, 수염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쁜 액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으며, 조선말기까지 정초에 호랑이와 닭 그림을 대문에 붙여 사용하였다.

◎ 삼재부적(三災符)

액막이 부적 중에서 회화성, 예술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삼재부(三災符)이다. 삼재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세가지 재난인 도병재(刀兵災) · 질병재(疾疫災) · 기근재(饑饉災) 또는 화재(火災) · 수재(水災) · 풍재(風災)를 막아주는 부적이다.

사람은 9년마다 주기적으로 삼재를 맞이하게 되는데, 삼재운이 든 첫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 부른다.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들삼재' 이고 그 다음이 '누울삼재', '날삼재'의 순서로 액운이 따른다고 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삼재팔난(三災八難)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삼재는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이고, 여덟 가지 재난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을 말한다. 사람들은 삼재 액운이 든 해에 글씨부적 뿐만 아니라 머리가 셋 달린 매를 경면주사로

그러거나 적어서 출입하는 방문 위에 붙였다. 매의 사나운 주둥이와 날카로운 발톱이 유난히 강조되고, 큰 날개와 힘 있는 꼬리가 위협적으로 보여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액운을 높은 곳에서 찾아내 세 개의 부리로 삼재를 쫓아 없애준다고 믿었던 것이 삼두일족음삼재부(三頭一足鷹三災符)이다.



삼재부적,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 불교의 전통적 부적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토착신앙과 결합하여 불교화된 신앙을 꼽자면 대표적인 것이 산신(山神) 신앙일 것이다. 산신 신앙에는 무속(巫俗)과 주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불교 본연의 구도행 가운데 중생구제는 사바세계의 액운을 막아주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찰의 동지(冬至) 행사 중 각종 부적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가정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그 예이다.

부처의 지혜로 정신이 통일되고 성불하고자 하는 다라니(陀羅尼) 부적을 비롯하여 불교와 관련이 깊은 구도부(求道符), 멸죄성불부(滅罪成佛符), 당득견불부(當得見佛符), 위인염불부(爲人念佛符), 왕생정토부(往生淨土符), 구도부(求道符), 금강부(金剛符), 준제부(準提符), 관음부(觀音符) 등이 있다. 원래 불교적인 소재만 있었던 부적 속에 점차 길상적인 의미와 벽사적 내용이 더해지게 되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부적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수록하므로 부적판의 이름도 만사형통부, 백사대길부라 이름한 것도 있다. 이 역시 불교의 대승적 차원에서 중생들이 기원하는 모든 바램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교 전통의 부적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구도부(求道符), 당득견불부(當得見佛符), 염불부(念佛符), 왕생정토부(往生淨土符), 금강부(金剛符), 준제부(準提符), 관음부(觀音符)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모든 것을 부적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를 낳을 때, 집을 지을 때, 심지어 나무하러 갈 때도 부적을 사용했다. 부적은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염원이 담겨 있다.



설과 정월 대보름의 세시미학(歲時美學)

정월의 명절 축제의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설과 정월 대보름이 있다. 설은 시작의 신성성이 자리하고 정월 대보름은 열린 축제성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두 날 다 대단히 중요한 세시명절로 대접받아왔다. 설은 가족안의 축제다. 설 관련 세시 자체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듭의 문화다.

반면에 정월 대보름은 마을 안의 축제다. 대보름 관련 세시 현상에는 공동체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행해지는 명절이지만 일년 중 대단히 중요한 명절축제다. 대부분 마을 동제(洞祭)도 이 기간에 지낸다. 그만큼 금기의 신성한 시간이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철을 맞이하고 개인마다 한 살 먹는다는 뜻이 설 명절에는 짙게 남아 있다. 대보름은 농경문화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예측적 의식(儀式)이 강했다.

봄철을 준비하는 공동체 소망이 남아있는 명절이다. 미리 한 해의 농사를 모의하여 마을의 안녕을 심는다. 개인보다 혈연관계와 지연관계를 중요시한 탓이다.

한국인 누구나 설날은 그리움과 아늑함을 떠올린다. 설날의 그리움은 대가족의 정(情)이 얽혀있는 민속적 감성이다. 설날의 아늑함은 우리 고유 미풍의 덕(德)이다. 정과 덕은 나누는 날의 풍습 의미가 담긴 설날, 그 자체만 입에 떠올려도 따뜻하다. 설의 뜻에는 이미 고향의 감나무 까치밥과 메주 뜨는 온돌이 스며 있다.

설에는 덕담(德談)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데 있다. 동티 나지

운 집안 식구들 오는 잠 참으며 밤새 설치니,
동창에 붉은 햇빛 솟아 이미 새 해가 되었구나.
웃으면서 아이들마다 세배하는 것을 보니,
홀연히 고당에 헌수(獻壽) 자리와 같구나.
-유만공의 풍서풍요 정조(正朝)



않을까 근심하고 조상의 음덕을 받고자 음복도 한다. 대보름에는 마을신에게 감사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놀면서 봄철, 여름철, 가을철을 준비한다. 마을 구성원들이 규칙에 따라 철갈이의 원리를 통해 묵묵히 대비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보답 받는다고 천지신명에게 빈다. 마을 지킴이신에게 치성(致誠)을 드린다.

설날이 되면 피붙이의 모친회로(母川回路) 본능으로 고향으로 모여든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올리며 일가친척 위주의 명절축제도. 음복과 덕담으로 귀결되는 가족끼리 나눔은 행복 확인의 자리다. 북소리 돌리듯 서로를 치켜세우고 웃으며 복을 만드는 잔치를 벌인다. 세찬과 세주, 설빔 역시 이러한 이미지를 닮아 있다. 떡국 한 그릇에도 지극정성이 담겨 있다. 예전에는 정월 연초에 십이지일(十二支日) 떠날을 통해 초복과 제액(際厄)의 의례 행위를 선보인 것이다.

설은 가문의 전통을 근신 속의 전승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차례를 통한 조상과 교감과 하고 세찬, 세배, 덕담, 가족놀이 등을 통해 산사람들끼리 좋은 이미지를 나누어 끈끈한 연대감을 다지고 또 다진다. 토정비결도 한 해 운수놀이인데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축적하는 행위인 것이다. 새해 새날의 정성이 깃든 명절이다.

대보름 전후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아가는 세시행위를 한다. 설의 떡국이 보름의 오곡밥으로 바뀌듯이 조상의 정성이 마을신의 정성으로 바뀐다. 마을제사의 대상에게 삼가 금기로 기원하되 마을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풍요와 다산을 기대한다. 부스럼 깨물어 무사를 축수하고 액연(厄鵞)을 띄워 건강한 삶을 부른다. 결국 혈연 중심의 집안 축제에서 지연 중심의 마을 축제로 상생시켜 온 새해 정월 초는 신성한 명절로 대명절인 셈이다.

충북 곳곳마다 대보름에 줄다리기, 다리밟기, 지신밟기, 계웅치기, 석전, 쥐불놀이, 별신굿 등을 하였다. 달, 땅, 딸의 음성(陰性) 연상을 통해 풍요를 모의적으로 표출하였다. 청주 무심천 남석교와 영동 영동교 다리밟기는 한 해 무병건강을 기원하는 놀이였다. 충주와 제천에서는 귀박이술과 보쌈에 뿌리를 둔 청명주와 약초보쌈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단양 온달성 재밟기는 재를 밟으며 중년과 다리 무병을 빌었던 놀이다. 마을마다 지내던 동제 관련 대보름 제사 음식이 그곳의 향토명품으로 전하고 있다.

별신제는 명절축제의 성격과 동제의 또다른 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목계별신제와 오티별신제가 그것이다. 국사제, 산



신제, 서낭제 등도 대개 설 지나 사흘부터 대보름까지 지내며 마을축제의 원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은, 영동, 옥천, 청원 등에서 지내는 탑신제는 솟대와 탑이 같이 있기도 한데 탑신에 제사하고 농악을 올린다. 이처럼 공동체 민속의례에는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며 연대정신을 다진다. 설에서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정월의 명절축제는 가족끼리 결속시키고 마을 사람들끼리 결속시키는 둥근 울타리의 민속날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생생력(生生力)을 기르는 시간대다. 이 정월 초 명절축제의 힘은 1년 약발이 통한다고 믿었다. 정성과 기대가 컸던 전통명절유산인 썸이다. 연어가 어머니강으로 돌아오듯이 집 나가고 마을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고향성(故鄉性)이 짙은 세시풍속이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철을 맞이하고 개인마다 한 살 먹는다는 뜻이 설 명절에는 짙게 남아 있다.
대보름은 농경문화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예측적 의식(儀式)이 강했다.
봄철을 준비하는 공동체 소망이 남아있는 명절이다.
미리 한 해의 농사를 모의하여 마을의 안녕을 심는다.
개인보다 혈연관계와 지연관계를 중요시한 탓이다.

판을 벌인다는 자체가 짝을 이루어 겨루면서 피붙이끼리 맏힌 벽을 허물고 서로를 공감하는 순간이다. ‘죽었어요, 업혔어요, 쫓았어요, 빠졌어요’ 등 윗판 자체가 민주적이고 중경도 자체가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의 판이 아닌가. 판운의 기대감과 선망 달성의 어려움을 예견하듯이 가르치는 교육장, 크게 중경도놀이판이다. 윗놀이는 농경적 상상력과 개인 재능의 발휘가 절묘하게 얽혀 있는 민속성(民俗性)이 있다. 곧 개인적인 경쟁력 성취가 집안과 가문, 주변의 행복감을 일깨우는 원리다. 윗점 역시 소망의 점복의례이고 이 심층에는 피붙이 지키기를 위한 덕담과 놀이를 익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같은 정월의 대보름과는 사뭇 다르다.

정월의 설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일치가 하나로 화합하는 으뜸의 세시성(歲時性)이 있다. 정월이 윗력서(律歷書)에 하늘(天)사람 셋이 최고로 합일하는 으뜸달이고 설날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사람의 모듬살이를 아름답게 끌어올리는 으뜸명절이라고 한다. 시초, 기원이라는 신성의 영험성애다가 성취에 대한 덕담 위주의 주술성이 설날의 미풍양속으로 짙게 자리한다. 혈연 찾아 나서는 귀성 대이동의 생생본능에도 이러한 피끝림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 해의 우여곡절과 만단사연을 털고 새로운 한해의 성취를 다지는 설날,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꿩들의 원초적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 날 도시생활 속에서 잠시 잊었던 고향을 닮은 블랙홀의 시간이 설에서 대보름까지다. 살아 있는 가족과 돌아가신 조상, 심지어 유년의 이웃까지 정신적 유대감을 갖고자 집으로, 흙의 집으로 성스럽게 찾는 세시일이다. 동기감응이 내리는 날이다. 고향성과 혈연성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다. 한민족의 대표적인 신세연두(愼歲年頭)라고 불리고 싶다. 설날 세배에서부터 공동체 대동놀이까지 이러한 원형질이 녹아 있다.

전통명절유산에는 미래의 창조적 유전인자가 있다. 세시창조산업이 필요하다. 농경세시가 점차 사라져가는 세대에 불구하고 마을과 고을마다 여전히 대보름 윗놀이와 제기차기, 널뛰기 등 신명을 내고 있다. 이



를 빚어내던 솜씨와 맵시, 정성을 쏟던 마음씨 모두 아름다운 명절축제의 진국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살려내고 지역 명절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현대감각을 통해 살려내야 한다.

예전 설과 대보름의 맛과 멋을 창조산업화하는 일은 경쟁력이 있다. 서구식 기념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세시전통지식을 스토리텔링 문화상품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시전통지식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설에서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정월의 명절축제는 가족끼리 결속시키고
마을 사람들끼리 결속시키는 둥근 울타리의 민속날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생생력(生生力)을 기르는 시간대다.
이 정월 초 명절축제의 힘은 1년 약발이 통한다고 믿었다.
정성과 기대가 컸던 전통명절유산인 셈이다.
연어가 어머니강으로 돌아오듯이 집 나가고 마을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고향성(故鄉性)이 짙은 세시풍속이다.

위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한류(韓流)로 지속시켜 가야 한다. 가장 전통적인 것에는 아이디어 브랜드 지혜에 따라 세계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창식

문화재위원(충청북도)
제천시지역학술회의 의장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인간은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지나간 역사는 물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역사는 계속되고 그 역사 속에 살아 갈 것이다.

역사는 일반적으로 말과 글로 전해지는데 말로써 전해지는 것은 오류가 생기기 쉽고 글로써 전해 질 때는 보다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글로써 전해지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지난역사와의 교류는 물론 현재를 기록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여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다.

이러한 책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에 도움이 되도록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 책만큼 훌륭한 것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만들어내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책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평생 희로애락을 책의 숲속에서 누리는 이른바 장서가들이 있다.

나도 갖고 있는 책들을 가치나 귀중함 등 질로 따지지 않고 단지 수량으로만 친다면

장서가 됨에 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취미가 책 수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첫마디가 지금 몇 권정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면 조금 갖고 있다고 한다. 재차 묻는다. 몇 권이나 되느냐고,

그제 서야 대략 5만여 권 정도라고 하면 놀라는 표정이다.



다독을 강조한 고사성어 중 두보의 시에 나오는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가 있는데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책을 많이 읽을 것을 권하는 말이다.

그 당시 수레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다섯 수레에 책을 가득 실으면 대체 얼마나 될까? 당시는 글을 죽간에 썼으므로 다섯 수레에 가득 채운다 해도 고작 몇 백 권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 정도의 책이면 그때까지 문자로 남은 지식의 총량에 가까운 분량이었을 것이다. 요즘의 책 권수와는 비교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나의 장서는 도대체 몇 수레나 될까? 나는 지난 81년 결혼을 하면서 인천에서 살다가 직장이 있는 수원에 신혼 등지를 틀었다. 살림살이와 같이 책들도 나를 따라왔다. 수레로 온 것이 아니고 화물차에 실려 온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원, 과천, 안양 등으로 10번 정도 이사를 했다. 그때마다 책들은 계속 늘어났고 나를 따라 어김없이 옮겨왔다. 단지 옛날의 수레가 화물차, 익스프레스차로 바뀌어 온 것이다.



그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

차곡차곡 쌓여가는 손때 묻은 책들을 보면서
세월과 세계를 넘나드는 온갖 책을 갖고 싶은 욕심에
무작정 사는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많은 장서를 가리키는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는 말이 있다. 수레에 실은 책을 끄느라고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들보에 가득 찬다는 뜻으로 책을 계량하는 표현이다. 지금 나의 장서량을 그때와 비교해서 달리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거서라 해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그 당시 오거서가 지식의 총량에 가까운 분량이라고 한다면 만용에 가까운 나의 생각에 낮이 절로 뜨거워진다.

그러면 내가 모은 이 많은 책을 다 읽었는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책 중 나의 책에 대한 수집벽에 의해서 선택되어 끌려와 읽지도 않고 책장 속에 포로로 갇혀진 것들이 부지기수다. 처음에는 내가 산 책에 대해 읽으려고 샀지만 결국 내 소유가 된 책

들은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잘 안 읽게 되는 것이었다.

나에게 선택된 책들은 처음에는 책의 판형과 유형별로 책장에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대접을 받다가 더 이상 책장에 꽂을 때가 없으면 선택된 책만 책장에 꽂히고 나머지는 방한구석에 쌓이는 신세가 되고 그것도 안될때는 아예 박스에 집어넣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책이 늘어날수록 읽기는 커녕 책으로서의 대접도 못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책이 늘어나면 늘수록 책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대접을 못 받는다. 필자는 지나 87년 잡지 창간호 전시회를 갖은 바 있다. 이때 여성잡지인 <여원>에서 취재를 하여 게재하였는데 그때 타이틀로 “쌓인 책 때문에 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라고 썼다. 비록 풍자이지만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책 때문에 책은 책대로 대접을 못 받고 사람은 사람대로 대접을 못 받는 지경에 이른다.

그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차곡차곡 쌓여 가는 손때 묻은 책들을 보면서 세월과 세계를 넘나드는 온갖 책을 갖고 싶은 욕심에 무작정 사는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

예부터 책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책 수집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일화는 너무 많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중국 명나라 때의 일이다. 송판본은 옛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중 가장 값이 비싸게 나가는 귀중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사 벼슬의 주대소는 평소 송판본을 가져 보면 하는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다.

하루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송판본을 발견했다. 중국 동진의 학자 원굉이 쓴 <후한기>였다.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비단을 입히고 옥을 곁들인 호화스러운 장정으로 된 송판본을 확인한 그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말았다.

주대소는 책 주인더러 그 책을 양도하라고 간

청 했지만 좀처럼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대도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자 주대소는 급기야는 “그럼 내 사랑하는 여인과 바꾸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래서 책과 사랑하는 여인과 바꾼 사연이 생긴 것이다. 1836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얘기다. 돈빈센테 신부는 평소에 남달리 책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책 경매장에 들렀다가 보기 드문 귀중한 책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안중근의사는 독서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다.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이라 하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다. 책을 곁에 두고 사랑하는 것을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읽으려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된 그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10명이나 죽이고 말았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과거에도 그는 책 때문에 불을 지른 것을 비롯 갖가지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 사형에 처해졌다.

그 밖에 아끼던 희귀본을 단골손님의 청에 못 이기어 팔고 나서는 바로 그 손님의 뒤를 쫓아가 살해하고 책을 도로 찾은 엽기적인 고서점상의 이야기, 여러 나라의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진귀본의 표제만을 잘라내어 도둑질 하고는 그것들을 책장 깊숙이 비장하여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즐겼던 영국 고물상협회 창시자인 존 바그포드라는 신사의 이야기 등 탐욕이 빚어낸 엽기적인 얘기들이 수없이 많다. 일화로 전해지는 애서광들에게 일침을 놓는 성어가 있다.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낫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 경위는 책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사람 사는데 있어서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다. 책 수집을 위해 남을 죽이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는 행위는 설령 오거서 이상의 장서가라 할지라도 진정한 애서가는 아니다.

나도 광이 아닌 애서가로 남고 싶다. 다만 나쁜 짓은 안하지만 책과 관련된 삼치설(三痴說)만큼은 지키는 바보스럽지 않은 장서가로 남아야겠다. 삼치설은 책을 빌려 달라는 사람도 바보,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 빌려보고 돌려 주는 사람도 바보로서 비슷한 말이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책에 대해 대접을 해 주어야겠다. 우리 조상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책들을 서고에서 모두 꺼내 말리는 거풍(擧風)을 했다. 책을 숨 쉬게 해준 것이다. 이제라도 책 때문에 내가 숨 쉬지 못하는 것보다 책에게 숨 쉴 기회를 주어야겠다. 금년은 구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 100주년이다. 내년은 안의사의 순국 100주년이다.

안중근의사는 독서에 관한 명언을 남기셨다.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이라 하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다. 책을 곁에 두고 사랑하는 것을 비록 책을 읽더라도 읽으려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

남아수장오거서(男兒須藏五車書) 보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가 내 인생을 더욱 값지고 풍요하게 만들어 줄 테이니까.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기업문화의 이미지 그리고 변화와 추이

인간의 진화 - 기업문화

기업문화의 이미지 그리고 변화와 추이

기업문화의 기본 개념

산업경제 시스템이 글로벌화 되면서 기업이 생존 경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 경영의 조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의 개발, 저탄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 사업모델 개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미래비전과 경영이념의 확립, 경영혁신 전략과 변화관리 프로세스 구현, 우수 인재상 정립과 인적자원의 육성, 조직원 삶의 가치 증진과 업무동기 활성화, 조직 몰입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직력을 응집시키고 조직원 신념과 가치관의 동질성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문화의 틀 속에서 추진된다.

기업문화란 경영활동의 기본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실존적 신념, 업무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치관, 업무프로세스에 수용되어 있는 제도와 규범, 대내·외 적으로 표출되면서 전승되는 기업의 전통 등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기업문화는 조직역할에 수반되어 있는 관습, 규범, 전통, 지식, 기술 등의 행동양식과 조직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사명감 등의 사상적 개념이 총체적으로 융합되어 경영 시스템으로 계승되거나 조직기능에 의해 학습되어 전사적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기업문화는 기업의 대내·외 이미지 표상과 존립성을 표출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기업문화의 기본 기능

이에 따라 우리는 기업문화의 틀 속에서 조직원의 존재성을 확립하고, 조직집단으로 공존하면서 기업이 목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원의 삶의 비전과 성취 신념을 확립시켜 조직의 친화력을 도모하고, 조직의 통합된 역량을 기반으로 외부환경의 위협요인에 대한 완충역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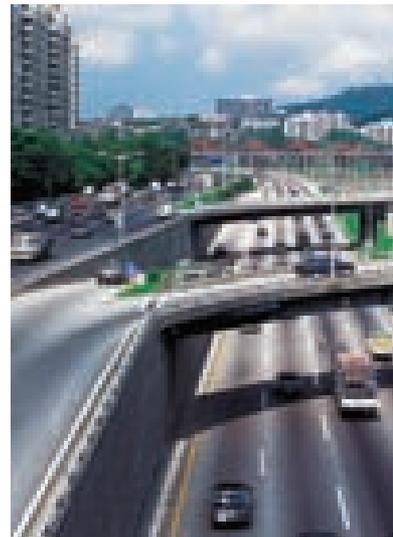
조정역할을 이행하여 지속가능 경영환경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특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문화를 더욱 鞏固(공고)히 하게 되고, 이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존립과 성장기반을 확립하게 된다.

우리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지향하는 기업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 “신의를 바탕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의 도전 정신과 신명나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지향하는 LG그룹의 기업문화도 감동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현대그룹의 도전정신, SK 그룹의 실용주의로 표상되는 기업문화도 기업성장과 발전의 기본 축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도 기업문화의 토대 위에서 성장성을 지속하고 있는데, HP는 조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고객에 대한 믿음을 기업문화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3M은 창조



기업은 미래비전과 경영이념의 확립, 경영혁신 전략과 변화관리 프로세스 구현, 우수 인재상 정립과 인적자원의 육성, 조직원 삶의 가치 증진과 업무동기 활성화, 조직 몰입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적 사고를 기본 모토로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명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지향하는 것이 기업문화의 풍토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기업들도 기업문화가 침체되거나 기업문화의 가치 지향성이 상실될 경우 경영전략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조직 역량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기업성장의 탄력성을 잃게 된다. 이는 기업 경쟁력의 상실로 초래되어 산업현장에서 퇴출되거나 서서히 쇠락하게 된다.

기업문화의 지향 과제

일반적으로 기업의 운영제도는 십년이 그 생명력이고, 기업문화는 백년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와 규범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리드하기 보다는 기업문화로서 조직을 융합하고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시켜야 한다.

근래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사상, 이념, 철학적 사조 등의 문화적 구성요소들이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의 급속한 성장단계에서 사회문화 학습기를 거친 세대들은 자아정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이지적(異志的)이고, 자존적(自尊的)인 가치관과 충동적인 행동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로 인해 조직에 대한 귀속성과 소속감이 떨어지고 조직목표에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자기중심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해 조직에 대한 갈등감이 고조되고 조직

기업문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전략추진의 핵심요소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영성과 실현과 경영전략을 실현하는 인적자원의 인프라, 연구개발 인프라, 대내·외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원 상호간의 반목 현상들을 유발하여 조직성과 추진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산업환경에 당면하여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현지투자자와 M&A 실행으로 다양한 기업문화를 수용하고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구현하면서 기업문화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기업의 공유가치가 이완되면서 조직의 융합성이 낮아지고 있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소재지와 존립기반에 관계없이 공동체 집단으로서 사상과 이념, 가치관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구심점으로 설정한 후, 이를 축으로 현지화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으로 제도와 운영기반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업문화의 발전 방향

기업문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전략추진의 핵심요소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영성과 실현과 경영전략을 실현하는 인적자원의 인프라, 연구개발 인프라, 대내·외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고객만족과 감동

을 실현하는 조직의 유연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토털 네트워킹 업무프로세스, 기업의 상징적 이미지 도출, 기업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기반이 공유되는 가치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는 운영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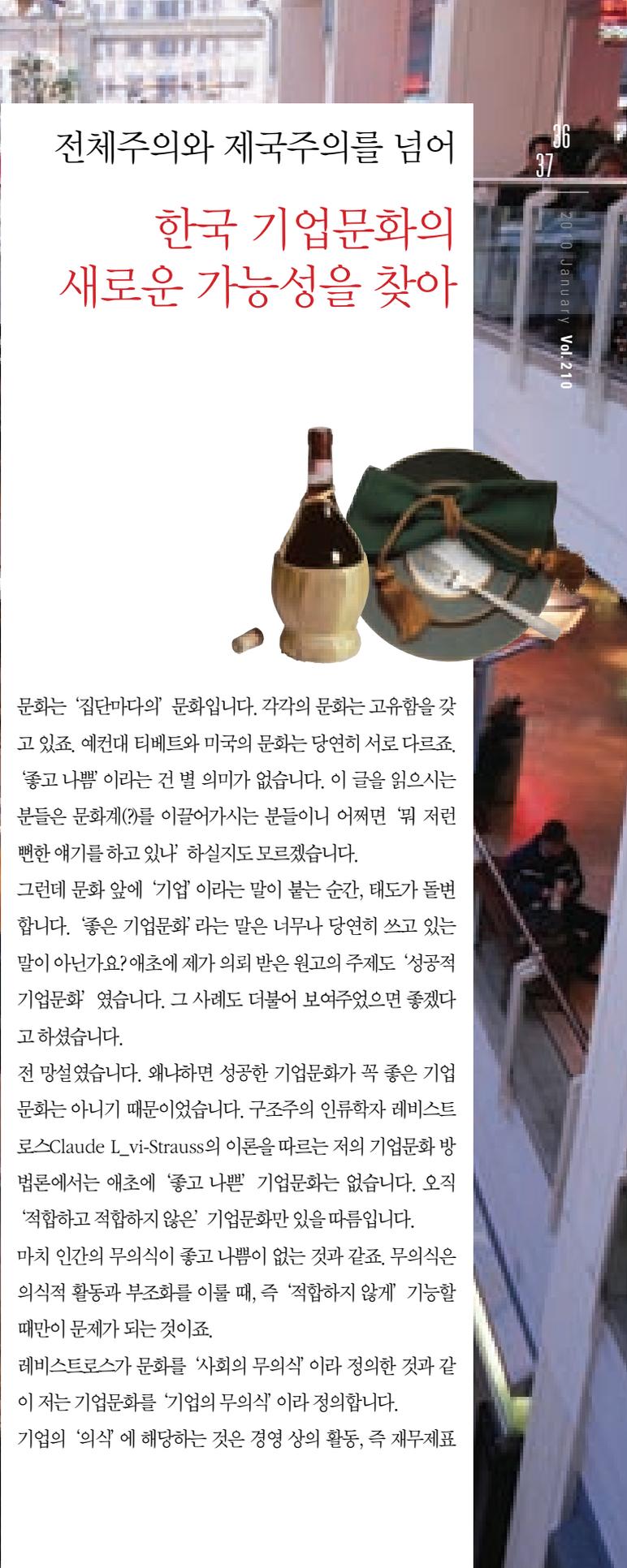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경력개발과 성과보상관리를 통해 업무동기를 활성화 시킨다. 업무역량을 개발하고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켜 경쟁능력을 증가시킨다. 업무표준화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이미지를 선진화하고 위기환경의 변화관리 능력을 전문화하며 기업문화에 내재된 신념, 이념, 사명감에서 표출되는 정신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소속감, 연대감, 자존감을 증가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비전과 경영전략 수용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장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기업문화의 목적성을 설정하고, 변화요소를 분류하고, 새로운 기업문화 가치 창출 방법을 설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방법으로 기업문화의 정신을 함양하고 의식을 고취시켜 경영관리의 자율성 향상, 조직운영의 유연성 도모, 조직원 업무역할의 창의성을 도모시킨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공중에 대한 선진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속가능경영 혁신방향을 제시하여 대 고객만족활동을 강화시킨다.



편창규 효산경영연구원 원장



전체주의와 제국주의를 넘어

한국 기업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문화는 '집단마다의' 문화입니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함을 갖고 있죠. 예컨대 티베트와 미국의 문화는 당연히 서로 다르죠. '좋고 나쁨'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니 어쩌면 '뭘 저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 앞에 '기업'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태도가 돌변합니다. '좋은 기업문화'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히 쓰고 있는 말이 아닌가요? 애초에 제가 의뢰 받은 원고의 주제도 '성공적 기업문화'였습니다. 그 사례도 더불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기업문화가 꼭 좋은 기업 문화는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Claude L_vi-Strauss의 이론을 따르는 저의 기업문화 방법론에서는 애초에 '좋고 나쁨' 기업문화는 없습니다. 오직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기업문화만 있을 따름입니다.

마치 인간의 무의식이 좋고 나쁨이 없는 것과 같죠. 무의식은 의식적 활동과 부조화를 이룰 때, 즉 '적합하지 않게' 기능할 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레비스트로스가 문화를 '사회의 무의식'이라 정의한 것과 같이 저는 기업문화를 '기업의 무의식'이라 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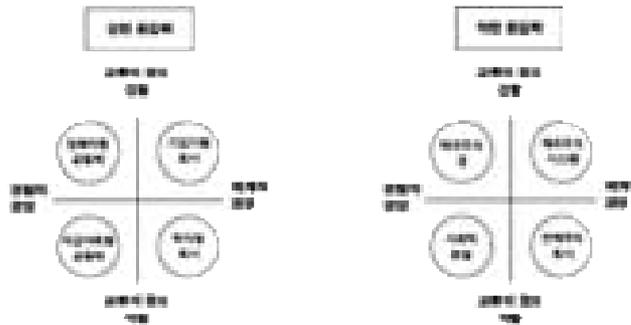
기업의 '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 상의 활동, 즉 재무제표

와 관계된 모든 활동이죠. 경영 전략에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기업문화'가 있을 따름인 거죠. 기업문화는 상대적인 눈 앞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백 만개의 기업이 백 만개의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의 경영에는 어떠한 기업문화가 적합한가'를 볼 수 있는 전략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을 알면 그에 적합한 음식이나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몸에 좋다고 태양인에게 인삼을 계속 먹이면 탈이 나지 않을까요?

인간의 몸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에 따라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을 분류하면 유용한 것처럼 기업문화도(넓게는 문화도)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기준은 1) 사회적 응집력, 2) 교류의 강도, 3) 체계성의 정도입니다.



기업문화의 유형 (출처 기업문화 오디세이, 기업의 인류학에 관한 친절한 강의 중)

1) 사회적 응집력은 문화가 가진 근본적인 기능과 관계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입니다.

사회학의 창시자 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은 이런 관점에서 문화를 '사회의 시멘트'라 하기도 했었죠. 문화라는 게 생겨난 이유가 사람들의 집단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응집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진흙에, 약한 문화는 모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 교류의 강도 역시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애초에 문화라는 게 복잡한 교류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니까요.

3) 체제성도 사회학에서 기본적으로 조직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초기 예수 공동체와 가톨릭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체제성에 의해 나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기업들의 문화는 '학자형'과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학자형은 응집력이 강하고, 전체주의는 응집력이 약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정情有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애초에 응집력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강한 응집력을 기반으로 서로 뭉쳐서 큰 성장을 해 온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응집력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문화에 기반해 있었기에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응집력의 핵이 되는 '소명 vocation 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영미권 중심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문화가 '이식'된 데 따른 결과이죠. 애초에 서유럽에서 탄생한 자본주의는 청교도적인 윤리, 특히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명으로서의 기업가 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화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소원한 것일 수밖에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 감에 따라 응집력을 잃어갔습니다.



여기서 응집력의 핵이 되는 강한 '소명'을 가진 기업의 예로서 공동체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유형은, 종교학에서 쓰이는 sect(교파, 종파)와 유사한 문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플Apple을 떠올려 주십시오. 금단의 열매라는 상징처럼 '대형 컴퓨터를 사람들의 손 안에'라는 그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소명으로 탄생한 후, 그 소명에 기반한 강한 신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객 역시 그 신념의 전파자이죠. 세상은 '애플 마니아'와 '애플 마니아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쩐지 우리 기업과는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에 부합하여 성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 식의 유교적 응집력은 평생고용, 안정된 직장 등의 개념을 추구하며, '철밥통'이 되어갔죠. 학자형 회사의 특징입니다.

인맥과 학맥 등에 의해 응집력은 변질되었구요. 살아 남기 위해서는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공동의 소명이 있다면 서로는 동지 관계일 텐데, 그것이 없었고, 거기에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까지 더해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8-90년대 경제 성장은 이러한 전체주의 문화로 가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0년 이후 기업들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더 이상 전체주의 문화로는 성장이 어려웠으니까요. 특히 제국주의 형태로 변화를 시도한 기업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국주의'라는 말이 앞에 붙은 기업문화는 이윤 추구하고 시장 확장 자체가 목적입니다. 서양문화사의 제국주의가 그러했듯이 말이죠. 응집력이 약할 수밖에요. 돈 못 벌면 사람들과 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삼성은 제국주의를 지향하며 탄생하였습니다. 특별한 소명보다는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러다 중간에 '산업보국' 같은 가치를 내세우는 등 강한 응집력을 형성하며 큰 성장을 구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좌표에서의 '기업가형').

그러나 그 가치 자체가 (공허한) 국가주의에 기반해 있던 것이기에, 이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회사로 가고 있었죠(좌표에서의 '학자형'). 성장은 멈추었고요. 그러다 1990년대 중반에 이견희 회장이 선포한 '신경영' 이후로 '제국주의 시스템'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 용병에게는 최고 대우를! 이런

내부 정책과 함께 시장 확장을 병행하여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죠.

이미 삼성은 '국적 없는 글로벌 기업'의 대열에 들어섰고 앞으로도 그 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 드렸던 시피, 응집력이 없는 기업문화이기에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경우 급속한 이탈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를 막기 위해 전체주의적인 문화로 변질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IG의 기업문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G 역시 제국주의 기업문화에 의해 크게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관리의 삼성', '인화의 IG' 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제국주의 시스템 유형의 패턴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기업문화는 기본적으로 패턴의 문제입니다. 관리라는 코드에 의해(삼성), 인화라는 코드에 의해(IG)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제국주의 유형만이 성공의 열쇠일까요? 다른 형태, 특히 '소명'에 기반한 응집력을 가진 기업문화가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 많은 벤처 기업들은 '소명' 보다는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유형으로 탄생하였다가 몰락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공동체 유형이나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유형만이 옳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 있었기에 그리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제국주의 유형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은 인간 중심의 응집력을 가져가기에 좋은 문화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문화의 양면적 특성 중 '충성, 복종, 의리'를 제거한다면, 이러한 기업문화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특수한 경우라구요? 아닙니다. 한국의 경영 환경에서, 특히 우리



레비스트로스가 문화를 '사회의 무의식'이라 정의한 것과 같이 저는 기업문화를 '기업의 무의식'이라 정의합니다.

기업의 '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 상의 활동, 즉 재무제표와 관계된 모든 활동이죠.

경영 전략에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기업문화가 있을 따름'인 거죠. 기업문화는 상대적인 눈앞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홀푸드마켓 Whole Food Market, 구글 Google, 바디숍 the Bodyshop 등도 공동체형 기업문화의 진화 과정을 밟았습니다.

여전히 정복자형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그들의 신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지요. 이들 기업의 응집력의 핵심을 볼까요? 홀푸드마켓은 '생태주의에 기반한 농업과 유통' 이고요, 구글은 '정보의 민주화', 바디숍은 '커뮤니티 트레이드'를 통한 자연주의의 추구 입니다.

한국의 회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최근의 '이름다운 가게'는 너무 '사회적인' 기업이라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그럼 어떨까요? 안철수 연구소의 탄생과 진화 과정은 공동체형의 패턴에 해당합니다. 최근 현대카드의 기업문화의 변화도 주목할만합니다.

예전 금융권의 폐쇄적인 학자형 문화를 혁신하여, 자신들만의 창의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sian Beauty'의 창조'를 소명으로 하는 아모레퍼시픽 역시 예전의 관료적 문화에서 성공적으로 기업가형으로 변환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산업, 예컨대 콘텐츠 분야나, IT, 문화, 패션 및 예술 산업에서는 공동체 유형이나 기업가형이 적절합니다.

적은 규모로도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한 기업문화로부터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한편에서 제국주의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구요.

지금까지 짧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인류학' 이라는걸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비스트로스 이전의 인류학자들이 부족 사회를 '발전이 덜 되고 미개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구 사회를 '발전되고 진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가졌

던 것과 꼭 같은 오류가 기업을 둘러싼 담론에서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특히 영미권의 선진 경영이론이 이식된 한국 사회에서는 무조건 '발전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GE와 삼성의 기업문화에 대한 태도도 그러하죠. 혹은 그 반대편에서 구글이라던가 유탄김벌리의 기업문화만이 옳다고 하고 있진 않나 보여집니다.

인류가 가진 '야생의 사고'는 대칭성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어버리는' 것을 인류의 모든 신화는 용납하지 않죠. 일식과 월식에 대한 원형적인 두려움처럼 말이지요. 기업은 인간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오직 효율성과 수치만으로 인간을 환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안에는 기업문화가 살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문화 때문이죠. 기업문화와 경영활동은 '대칭적'으로 사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인간에 관한 학문'은 기업이라는 장에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 보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

〈기업문화 오디세이
기업의 인류학에 관한 친절한 강의〉 저자

기업의 문화마케팅

차별화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한 경쟁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 또한 무척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기업의 차별화 전략을 알고 대처해야 하며 그들의 차별화 전략을 우리 일상 속에 적용시키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기업들의 차별화요인으로 가장 일반화된 것이 제품의 품질과 기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품(하드웨어)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요소(소프트웨어)인 브랜드나 그 제품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통해 감성충족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가방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방보다는 명품브랜드나 명품가방이 주는 후광효과(Halo Effect)가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그 기업만의 차별화 요인을 개발하고, 차별화 요인을 통해 그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기술력보다는 기업전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독특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느냐가 기업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것





이다.

기업이미지는 기존 마케팅 방법과는 다르게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지라는 특성상 하나를 보고 인식되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사람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화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느냐가 21세기 성공의 키워드인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문화는 산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여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핵심은 하드웨어적(제조와 기술)인 영역에 소프트웨어(감성, 창의성)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창출되는 종합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럼 문화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획일화된 생활방식보다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둘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벽이 무너지면서 문화의 상업화를 통해 문화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기술의 발달을 통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문화 생산자(Cultduct | Culture + Product)로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넷째, 기술의 유사성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 유사해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차별화된 마케팅 방법

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세기에 걸맞은 '문화마케팅'이라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매출증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마케팅의 한 수단인 것이다. 즉,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무차별적이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마케팅보다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문화를 통한 마케팅에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방법으로 문화마케팅이 기획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좋은 기업이미지가 형성된 기업의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요인이 차별화되고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로 변화되면서 소비자들과 기업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차별화된 기업이미지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 기업들은 문화마케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의 문화마케팅은 문화와 체험이 결합한 특성을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내부조직도 소비자로서 인식하여 내부조직 경영에 적용하고,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문화마케팅의 시초는 메세나 활동에서 비롯된다. 로마제국의 정치가인 가이우스 슬리니우스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 BC 76~AD 8)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메세나는 예술, 문화, 과학에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메세나라는 용어는 1967년 미국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처음 쓰게 되어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 협의회를 설립하면서 기업인들의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메세나란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



메세나운동은 갈수록 첨예화되어 경쟁과 경제 사정에 직면하게 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예술지원과 마케팅의 연합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매상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이용되었으며 예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과 예술후원이라는 상호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한국메세나협회의회가 1994년 발족되어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메세나운동은 갈수록 첨예화되어 경쟁과 경제 사정에 직면하게 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예술지원과 마케팅의 연합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매상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이용되었으며 예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과 예술후원이라는 상호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한 단계 더 나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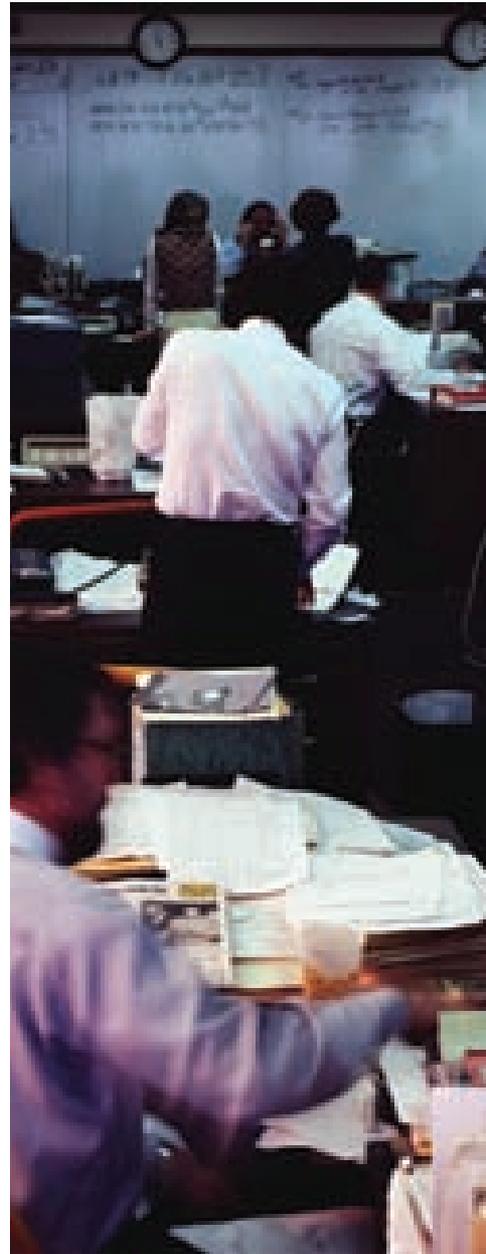
문화마케팅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는 통합적이며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을 팔기 위한 문화마케팅은 지양해야 하며 현재 기업의 이미지를 조사 분석한 후 원하는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진섭과 일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를 도출하여 내부조직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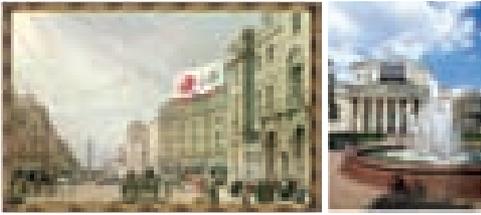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문화예술 관심분야부터 문화마케팅이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사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문화마케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마케팅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술작품을 활용한 경우로 삼성전자는 63인치 PDP TV 신제품 발표회를 특이하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내에 그림 전시 공간 중 한곳에 PDP TV를 설치하고 세계 유수의 명화를 상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우수한 해상도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홍보하고 예술작품의 집합체인 박물관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이미지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 붕괴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볼쇼이극장(Bolshoi Teatr)에 10만 달러를 협찬하는 계기를 통하여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라는 러시아인들의 호평을 듣기도 했다. LG전자의 제품을 세계적인 명화를 같이 광고로 제작하여 명화를 통한 후광효과를 통해 제품과 기업이미지 모두를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1

2

1. LG전자 광고사례
2. 불쏘이 극장

또한 이주 긍정적인 문화마케팅 형태로 자사의 제품과 기술로써 문화마케팅을 펼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화를 들 수 있다.

한화는 화약이 모태인 기업임을 활용해 화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소비자적인 기업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2000년부터 개최하여 화약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화약을 통한 독특한 문화기업이미지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된다.

IBM 또한 자사의 기술력을 통하여 박물관, 미술관, 세계문화유산을 복원하며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반면 세계인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문화마케팅을 통한 기업 이미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문화의 시대에 우리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우리민족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더하여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해보며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드러커 교수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마케팅 십계명

기업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라

전사적으로 문화마케팅을 실행하라.

문화예술분야에서 기업경영방법을 모색하라.

타깃고객의 문화적 취향을 항상 생각하라.

자사의 강점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문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CSR)에 힘써라

광고, 홍보의 중심은 자사의 문화로 해라.

주기적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적용하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라.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자사의 문화를 각인시켜라.



진종훈

사)한국모델협회
문화마케팅 분야 전문위원

예절禮節이란 무엇인가?

예절禮節이란 무엇인가?

“예란 무엇인가?”고 물으면 흔히 대답하기를 “예란 친한 것과 친하지 않은 것을 정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규명하고, 같고 다른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禮記, 曲禮 上- 夫禮者 所以 定親疎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고 중국의 삼례 중 하나인 예기를 앞세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절의 기능(機能, 역할)이지 예절의 정의(定義)는 아니다. 조선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선생은 그의 저술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예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선생님께서 ‘예란 하늘의 이치를 가능한 글이요, 사람노릇의 규범이라(昔聞 諸先師曰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부터 60년 전, 8·15해방 전만 해도 “예절은 성현께서 해놓은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여라.” “옛글에 그렇게 되었다.” “어른께서 하라시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다시 물지를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인지 옛 예서에는 왜? 에 대한 설명이 인식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다. 유치원 아이들로 부터 대학생까지 “왜요?” “왜요?”라고 말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학문적인 탐구심이라고 하면 칭찬할만한 일인데 너무 쉽게 알고하고 하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현대의 예절교육은 ‘왜?’ 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에티켓’이나 ‘매너’ 라고 말하면 현대인이 꼭 알아야할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예절’ 이라고 말하면 ‘전통예절’ 이라 인식하고, 전통은 옛날 것, 낡은 것, 현대인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쳐부해 버린다. 과연 전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필요없는 것은 옛날 것이지 전통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아는 척 해야 하겠지만 골치 아픈 것이다. 지식에게 물려줄 것은 못된다. 이것은 낡은 것이며 버려야 할 것이지 전통이 아니다.

전통이란 옛날부터 존재해 현대를 거쳐 미래로 이어져야 할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미루어 전통예절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나도 필요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생활방식인 것이다. 즉 전통예절은 현대예절의 일부인 것이다. 전통이 많은 민족을 문화민족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기본요건을 온고이진(溫故而知新)하는 것이라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전통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문화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생활자세인 것이며 유구하고 영원한 뿌리인 것이다.

1. 예절이란 이것이다 [定義]

가. 예절은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다

예절은 버릇이다. 무례(無禮)한 사람을 “버릇없다” 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절은 법(法)이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상식화된 민법이나 형법이 아니고 예법이라는 법이다.

예절은 약속이다. 우리가 외톨이로 혼자 산다면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될 것이다.

즉 절하고도 무인도에 혼자 뚝 떨어져서 산다면 굳이 예절이 없어도 될 것이다. 남과 어울려 더불어 함께 살려니까 예절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살려면 생활방식이 같아야 편리하고, 생활방식이 같으려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자고 약속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 예절이다.

약속이란 약속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 누가 언제 예절이라는 약속을 했을까?

나. 예절은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

예절은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 조선예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선생도 “우리나라 남북지방의 풍속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했다” 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 주변과 생활 속에 어떻게 예절이 있는 것일까?

산에 있는 오솔길은 아무도 길을 만든 사람이 없는데 오솔길이 거기에 있다. 아무도 예절이라는 약속을 한 사람이 없는데 예절이 우리 주변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절은 알기가 어려우니 눈에 보이는 오솔길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이다.

산이 아니면 어떤가. 여기에서 저기, 두 지점사이를 이어가려면 누구든지 제일 가깝고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방법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코스(길)는 하나밖에 없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열이 가면 열 가지로 갈 것이고 백이 가면 백가지로 갈 것이다. 아마도 한 사람이 열 번을 가도 열 가지로 갈 것이다.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무수히 다니다 보면 마침내 체험적으로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백이 가든 천이 가든 같은 곳을 밟고 갈 것이고 마침내 그 곳이 길이 될 것이다. 생활방식도 일반이다. 같은

여건하의 생활권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마침내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구태어 해라 마라 할 것도 없다. 그냥 놓아두면 누구든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것이 관습(버릇)이 되고 관습이 쌓여 약속한 것과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절이다.

때문에 예절을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규범(慣行性 社會契約的 生活規範)이라 하는 것이다. 예절은 그 생활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편리한 생활방식인데 우리 주변에는 그 예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생활방식을 포기한 미련한 사람이다. 왜일까? 그 까닭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예절은 왜 해야 하나? [目的]

가. 예절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사는데?

예절을 모르고 예절을 안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며 사는데 예절을 왜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된다.

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은 비록 남이 보기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 불안하게 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이치를 깨달으려면 예절을 왜 해야 하는지 예절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나. 2천6백년 전, 그리스의 ‘이솝 이야기’

사회생활이란 혼자 살지 않고 남과 어울려 사는 것이고, 어울린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말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려면 서로 상대방의 생활방법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생활방법이 같아야 한다.

‘이솝’의 우화에 늑대가 두루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국물을 접시에 담아서 상을 차렸더니 주인인 늑대는 활아먹을 수 있었지만 손님인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 먹지 못했다.

화가 난 두루미가 국물을 목이 긴 병에 담아서 여우에게 주었더니 부리가 없는 여우가 하나도 먹지 못해 보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우가 왜 두루미에게 국물을 접시에 담아서 주었을까? 그것은

골탕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우가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다. 아무렇게도 이솊이 그런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읽으라고 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 원만한 자기관리(自己管理)와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위해서

여우는 두루미의 생활방식을 몰라서 자기방식으로 했던 것이다. “사람은 외톨이로는 살지 못한다. 반드시 대인관계를 엮어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생활방식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솊이 그 이야기를 쓴 참뜻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읽기를 권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지 짐승과 사람의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람이 되려는 자기노력을 우리는 자기관리(自己管理)라고 한다.

사람살이의 근본인 더부살이는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야 하는데 바로 예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人)이 되어, 사람(人)노릇을 해서, 사람(人)대접을 받으며, 사람(人)과 더불어 살려면, 사람(人)의 생활방법(예절)을 알아서 실천해야 한다.

3. 예절의 실제(實際)와 격식(格式)

가. 실체는 의사(意思)이다

사람대접을 받으려면 사람노릇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대접을 받으려 하면서도 사람노릇인 예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왜 예절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간단히 대답한다. “예, 우리 예절은 격식이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면 그만이고 실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격식이 무슨 소용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도 남이 자기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면 “건방지다” “무례하다”고 핀잔을 준다. 자기는 격식을 안해도 되는데 남이 자기에게 할 때는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절공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절의 실제 뿐

아니라 모든 실체는 마음속에 의사(意思)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곧 예절의 실제이다. 그러나 그런 실체라는 의사가 있더라도 속에 숨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상대편이 나의 속마음인 실체를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나. 갑돌(甲墺)이와 갑순(甲順)이의 사랑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고 참사랑이었다. 참사랑을 했다는 것은 사랑의 실체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혼인을 해서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야 할터인데 그 노래를 불러보면 엉뚱한 데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염없이 달빛보고 울었다고 되었다.

이것이 마음속에만 있는 의사라는 실제만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이다. 가끔 물어 본다. “왜 갑돌이와 갑순이는 혼인하지 못했을까?” 그 대답이 재미있다. “예 갑돌이와 갑순이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아무리 그 노래를 불러보아도 성이 나오지 않는다. 정답은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실제만 있었지 격식이 없었던 것이다.

실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일이고, 격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노래 속에 실제만 있고 격식이 없다. 그 실체가 어떻게 있었을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속으로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고까짓 것” 했다. 그런 사랑은 백년을 해도 안된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은 ‘사랑의 의사’만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랑의 의사를 상대편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 간에 의사를 인식시키는 것을 우리는 의사소통(意思疏通)이라 한다.

다. 격식은 의사소통(意思疏通)의 방법이다

1) 말로 하는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첫 번째 방법은 소리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껍떡 지른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소리에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그 생활권에서 약속해 놓은 어휘(語彙)와 어법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이다. 즉 의미가 담긴 소리가 말이고 말은 최소한도 내가 할 줄 아는 말이면서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된다.

일정한 생활권에서 약속해 놓은 어휘와 어법이 바로 말의 격식이
이고 말의 격식이 바로 언어예절(言語禮節)이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격식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2) 행동으로 하는 의사소통

불행히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자(聾啞者)들이 수화(手
話)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수화를 하지 못
한다고 해서 농아자와의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기
나름대로 뜻을 담아서 손짓 발짓을 해야 할 것이다.

농아자에게 손과 발을 크게 움직여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시도
해 보자.

그것을 보는 농아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농
아자의 수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짓을 농아자가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행동도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한다면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이다.

일정한 생활권에서 이런 때는 이렇게 손을 쓰고, 저런 때는 저
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그런 때는 그렇게 허리를 굽혀라. 약속
해 놓은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의사가 소통될 것이다.

약속해 놓은 행동방식이 바로 행동의 격식이고, 행동의 격식이
바로 행동예절(行動禮節)이다.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행동의 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3) 예절 격식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자

예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다.

언어예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약속해 놓은 어휘와 어법이다.

행동예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약속해 놓은 행동방식이다.

모든 예절이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격식이고, 그 약속해 놓은 격
식을 지키지 않으면 더부살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더부살
이이고, 원만한 더부살이는 약속된 생활방식을 알아야 하고,
그 생활방식은 모두가 격식으로 되어 있고, 격식은 한결같이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것들이다.

예절생활,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약속을 지키려면 약
속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고, 약속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예
절공부이다. 예절공부란 약속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 격식으로 이루어 졌다.

4. 더부살이에서의 예절의 역할과 본질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를 수기(修己)라 하고,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를 치인(治人)이라 한다.

수기하는 예절은 자기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자신에게 작용(對
內對自的 作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의 본질은 정성(誠)스
러운 것이고, 치인하는 예절은 자기의 밖으로 나아가 남에게
활용(對外對他的 活用)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의 본질은 공경
(敬)하고 사랑(愛)하는 것이다.

자기관리의 요령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신독(慎獨)이고, 대
인관계의 요령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安人)이다.

정성이란 자기를 속임이 없는(毋自欺·무자기 양심(良心)이
고, 공경과 사랑이란 어른을 공경(敬長)하고 아랫사람을 사랑
(愛幼)하는 인류애(人類愛)이다.

안에 있는 예절의 마음과 밖으로 나타나는 예절의 언동(言動)
이 일치해야 참 예절이라 할 것이다.



5. 법치사회(法治社會)와 예절사회(禮節社會)

가. 법의 강요성(強要性)과 예절의 관행성(慣行性)

우리는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사고(思考)와 언어와 행
동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법치사회라고 한다. 그런 의
미에서 법도 생활규범임에는 예절과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현대와 같이 법 지상주의의 법치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의 법은 예절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가
장 오래된 예서(禮書)로 알려진 주례(周禮)는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에 중국에 있었던 주(周)나라(서기전 1121~서기전 248)
의 정치제도를 일컫고, 조선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도 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현대의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법과 예절이 엄격히 구분
된다. 법은 죄와 벌을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가한다고 규정해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는 반면, 예절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성격의 것이다.

나. 타율(他律)하는 법과 자율(自律)하는 예절
 법치사회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은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고, 법을 어겼을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자가 위법자 자신이 아니고 공권력이라는 타인이기 때문에 법을 일러 타율기능(他律機能)을 가졌다고 한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타율을 혐오(嫌惡)하는 반면에 자율(自律)을 선호(選好)한다. 그토록 자율을 원하면서도 자율을 향유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며, 타율기능을 갖는 법으로나마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서 마침내 범지상 범만능(法至上 法萬能)의 사회를 이룬다.

이로 미루어 법보다 앞서서 것이 자율이고 법치사회에서도 좋은 사람을 일러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고 한다.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란 바로 자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다. 자율(自律)의 근원은 예의염치(禮義廉恥)

그렇게 좋은 자율이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스스로 자기를 꾸짖는 자책지심(自責之心)의 나타남이고, 스스로 꾸짖으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기행위에 대한 시비판단(是非判斷)의 기준이 정립된 사람이나 가능하다. 일의 잘잘못의 기준은 그 생활문화권에 있어서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된 것이다.

즉 관행성 사회계약적 규범인 예절정신이 투철해야 자기가 예스럽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러워해 자율하게 되는 것이다.

법은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므로 두렵긴 하지만 잘못을 숨기고 거짓을 꾸며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못을 알 수 없으나, 예절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알아 꾸짖는 바탕은 예의염치(禮義廉恥)이다.

현대 사람들이 '예절' 이라고 하면 진부하고 까다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에티켓', '매너' 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알아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여긴다.

알고 보면 예절이 에티켓이나 매너이고, 매너나 에티켓이 바로 예절인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말로 예절이라고 하면 싫어하면서, 외래어로 에티켓이나 매너라고 하면 그것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서양음식을 먹는 식탁 매너는 지켜야 하면서도 우리 음식을 먹는 식사예절은 아무래도 좋다는가, 손님을 맞는 예절은 안 지켜도 되지만 파티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예절과 에티켓의 다른 점을 굳이 갈라서 말한다면 예절은 우리나라의 예절이고 에티켓과 매너는 주로 외래예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뿐이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예절은 싫고 외래예절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정신상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 한자문화권의 예절

동양문화권이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을 말할 수 있다. 이들 세 나라는 같은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이며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책들이 한문으로 쓰여 졌다.

그런 관계로 빈번한 문화교류와 인적 왕래 등으로 인해 생활방식이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같은 유교(儒敎)문화권이기 때문에 사상적 배경이 같아서 삶에 대한 가치기준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에 의한 차이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예절인식이 같으며 규범적 격식에 있어서도 유사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나라별로 말하면 중국은 소위 동양문화의 종주국으로 자처해 중화(中華)사상이 팽대해서 유교의 중흥(中興)학자인 주희(朱熹)의 학설에 의한 예절이 5천년 중국예절의 집대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대 왕조가 소위 중화인만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에 있어서도 다분히 주변민족의 생활방식이 혼성된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토속신앙인 신도(神道)문화 위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유입·점목되고 다시 불교문화가 깊이 침투되면서 그것들을 융화해 나름대로의 생활문명을 형성했고, 근

중·일·한 문화권은 예절·예절의 근원·예절의 정립·예절의 변화·예절의 현대화·예절의 국제화·예절의 세계화

6. 예절과 에티켓은 말만 다르다

가. 예절과 에티켓은 같은 것

대에 와서 동양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서구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국제적 시각으로 볼 때 세련미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섬나라로서의 특징을 살려 생활규범상의 독자성을 잘 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칭호를 들을 만큼 예절에 있어서 단연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동양정신문화의 핵심이라 할 도덕 윤리 예절이 우리나라를 원류로 하고 있음에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 살면서도 생활규범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지키고 있다.

다. 서양문화권의 에티켓

서양의 에티켓이란 서양의 예절이며 서양의 사회계약적 생활규범을 말한다.

생활규범은 생활문화권에 따라 독특하게 발달·정립되는 것이므로 서양에도 서양대로의 생활규범이 독특하게 정립되었다. 그것이 동양의 우리에게서 생소한 것이었고, 그들과 교류가 빈번치 않을 때는 서양의 에티켓을 모른다고 해서 별로 불편을 느낀다거나 무례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첫째 우리가 입는 양복이 서양의 옷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복장예절에는 당연히 서양의 에티켓이 행해지게 되고, 양식을 먹는다거나 커피, 홍차 등 그들의 음식을 먹으려면 역시 서양의 식탁 매너에 능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대는 국제화·세계화라고 해서 온 세계가 동일 생활문화권에 묶이는 경향이 있고, 자연스럽게 서구인들과 어울리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서양의 에티켓은 차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음식을 먹으며, 서양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서양의 에티켓과 매너를 알아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서양의 에티켓과 매너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동양이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이 각기 지역과 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르듯이 서양도 나라마다 에티켓과 매너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에티켓이 서로 다른 점을 분간하는 요령은 언어와 예절을 결부해서 생각하면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언어문화권의 생활규범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달

라지면 예절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7. 예절에는 어떤 종류(種類)가 있나?

가. 전통예절(傳統禮節)은 현대예절의 일부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현대생활을 하는 데는 현대예절을 알아서 행해야지 전통예절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통이란 오래되고 낡아서 현대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는 것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신뢰하고 긍정해서 수호하고 계승할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전통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있었고 필요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자손에게 물려 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옛것일 수는 있어도 전통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통예절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예절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지키고 행할 필요를 느끼고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물려줄 가치를 갖는 생활방식이다.

때문에 전통예절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예절이면서도 현대생활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현대예절의 일부라 할 것이다.

유구한 민족문화를 누린 나라일수록 전통예절이 많다. 예절이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된 생활방식이므로 문화전통이 깊수록 전통예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이는 생활여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예절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할 부분과 달라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극진한 효성으로 그 은혜에 보답함에 있어서, 자녀를 기르는 데에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낳고 사랑하는 것은 달라질 수 없고, 효도에 있어서도 주거환경이나 의복·음식 등은 달라질 수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정성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악수로 인사하고 경례로 절을 대신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앉음살이[坐式生活] 장소에서는 우리의 전통배례(拜禮)를 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전래예절 중 새로운 생활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전래의 생활규범을 지킨다고 해

서 현대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래예절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것이 전통예절이고, 곧 문화민족, 유구한 역사 민족으로서의 자랑이며 긍지인 것이다.

나. 우리 예절과 외국의 예절

우리는 국제화(國際化)시대,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거의 동시생활권(同時生活圈)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각기 언어와 생활관습을 달리하는 잡다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섞여 함께 생활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도 세계 어느 나라에라도 무시(無時)로 왕래하며 그들 속에 살게 된다.

생활관습이 다른 외국인간의 예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예절로 하는 것이 좋을까, 너의 예절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중국의 기본 예절서인 예기(禮記)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절이란 가장 마땅한 것을 따르는 것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禮從宜 使從俗).”

미루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의 예절로 상대해야 하고, 외국에 갈 때는 그나라의 예절을 알아서 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예절을 모르는 것은 흉이 될 것이 없으나 우리의 예절을 모르던 흉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예절을 완벽하게 알아서 예스럽게 행하면 그 외국인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예절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의 예절을 내세우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나라의 예절에 능숙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언어 문화권으로 갈 때는 그곳의 언어를 알아야 생활에 편리한 것과 같은 것이다.

풍토와 지리에 따라 생활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는 그나라의 생활관습에 익숙해질수록 합리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체생활을 할 때는 국력(國力), 또는 각자의 기운(氣運)에 따라 어느 나라의 예절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흡사 국제회의의 통용어가 국력과 언어세(言語勢)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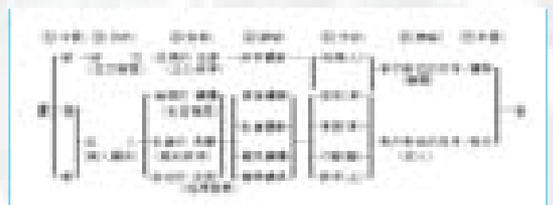
다. 기본적인 분류(分類)

예절을 기본적으로 분류함은 전통과 현대, 국내와 외국에 관계 없이 예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예절의 종류는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느냐에 따라 수없이 갈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총체적인 분야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예절의 본질에 따라 구분하면 정성(誠), 공경(敬), 사랑(愛)으로 나뉜다.
- ② 예절의 목적에 의해 분류하면 자기를 바르게(修己)하는 자기관리(自己管理)와 남을 상대(治人)하는 대인관계(對人關係)로 나누어진다.
- ③ 예절의 성격을 중심으로 나누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正心修身] 스스로를 규율하는 법도[自律的法度], 사람노릇 하며 사는데 지키는[生活倫理] 사람으로서의 의식예절[倫理的儀禮],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정한[契約秩序] 사회에서의 예절제도[社會的典禮], 조직·단체·국가를 유지 경영하기 위해 강제되는[他律強要] 법률이나 정치제도[政治的法制]등으로 구분된다.
- ④ 예절이 행해지는 범위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면 개인의 예절이랄 수 있는 수신예절(修身禮節), 가정생활의 가정예절(家庭禮節), 사회예절(社會禮節), 국민으로서의 의식절차인 국민례(國民儀禮), 국가간의 예절인 국제의전(國際儀典)이 있다.
- ⑤ 예절을 행하는 방법과 상태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정신[心], 몸차림[身], 의사소통[言], 기거동작[動], 위계질서[禮] 등에 관한 종류가 있다.
- ⑥ 예절의 기능면에서 보면 홀로를 삼가(慎獨)는 대내대자적(對內對外的) 작용과 상대를 편안하게(安人)하는 대외대타적(對外對他的) 활용이 있다.
- ⑦ 예절의 형질(形質)로 가름하면 의사의 형태로 마음속에 내재하는 실제(實際)와 일정한 약속 방식에 따라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수단인 격식(格式)이 있다.

위의 열거한 종류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라. 예절의 실천적 분류

전항에서 살핀 기본적인 분류가 예학적인 분류인데 반해 여기에서 실천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위대상에 의한 분류(分類)

- ① 혼자하는 예절 | 스스로 사람다워지려는 자기관리를 하는 개인 예절이다.
- ② 남에게 하는 예절 | 남과 어울려 함께 사는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의사소통 예절이다.
- ③ 함께하는 예절 |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예절로 조직생활 단체생활 공중도덕과 같은 예절이다.

2) 적용범위에 의한 분류

- ① 기본예절: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공통예절이다.
- ② 생활예절: 생활환경에 따라 개인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직장예절, 사회예절, 국제예절 등이 있다.
- ③ 의식예절: 모든 분야에 도식화(圖式化)된 의식절차로서 공통례(共通禮), 가정의례(家庭儀禮)[작명례(作名禮), 성년례(成年禮), 혼인례(婚姻禮), 수연례(壽筵禮), 상장례(喪葬禮), 제의례(祭儀禮)], 사회의례(社會儀禮), 국민의례(國民儀禮), 국제의전(國際儀典)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8. 예절의 교육과 실천방법

가. 예절을 배우는 방법

예절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마음가짐 | 항상 사람이 되고 사람노릇을 해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생활한다.
- ② 본 받는다 |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면 자기도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
- ③ 경계한다 | 남이 하는 일이 미워 보이거나 나쁘다고 생각되면 경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④ 잘 듣는다 | 어른 선생님 선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경륜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
- ⑤ 친구를 고른다 | 남에게 칭찬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다.
- ⑥ 예절책을 읽는다 | 예절에 대한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며 참고한다.
- ⑦ 지도를 받는다 | 예절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 열심히 배운다.

나. 예절을 실천하는 요령

예절을 아는 것도 좋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절을 몰라서 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 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이라는 지탄을 받는다.

모든 학문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예절은 알면 알수록 힘이 된다. 예절이 참 힘이 되려면 실천해야 한다.

- ① 자기관리 | 개성(個性)을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여름철의 메뚜기가 파란 옷을 입고 가을철의 메뚜기가 노란 옷을 입는 것은 환경과 조화함으로서 자기 보호를 하는 것이다.
- ② 대인관계 |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모두가 약속해 놓은 방식으로 한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공손함이 앞서야 한다.
- ③ 공중생활 | 사생활(私生活)을 주장하지 말고 항상 남을 의식해야 한다. 사생활이란 행위의 과정은 말할 나위도 없고 행위의 후유(後遺) 상태까지도 남에게 일체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생활은 없다.
- ④ 가까운 데서 먼 데로 |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다른 어른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듯이 남과 어울리며,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아낀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서울시지회

2009 서울문화가족 제1회 길쌈경연대회 개최성황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지회장 김영섭) 지난 30일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09 서울문화가족 제1회 길쌈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영섭 서울시지회장을 비롯 강희일 동작문화원장, 홍상기 영등포문화원장, 박중우 금천문화원장, 신현준 서대문문화원장과 시무국장 그리고 서울문화가족 및 길쌈에 관심을 가진 서울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길쌈문화축제에 이어 올해 제1회가 되는 길쌈경연대회는 선농단(농사)과 선집단(누에 길쌈)이 위치한 한양에서 농사와 길쌈이 보금됐음을 상기하며, 사라져가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고취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심사는 원주 목화체험마을과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의 지도강사 8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씨아,활타기,물레짓기,다듬이등의 과정을 순환하면서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서울시장상)에는 동대문문화원 김순환, 최우수상(서울시지회장상) 2명에는 구로문화원 김치수, 강동문화원 최춘지 등 18명이 입상하였다. 김영섭 지회장은 '이번 행사는 점점 잊혀져가는 길쌈을 비롯해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리기 위해 처음 경연대회를 가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연대

회 참가자도 많고, 반응이 좋아 만족해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된 경연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강동문화원

제4기 강동문화대학 수료식



3개월 동안 수강생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운영되었던 제4기 강동문화대학이 5기 문화대학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11월 25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강동문화원은 구민들에게 예술을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높아져가는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작품에 대한 인목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화려한 강사진과 수준 높은 강의내용으로 강좌를 운영하였는바, 지난 11월 18일(수)에는 수강생이 아닌 일반주민들에게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신영희 명창의 '우리 음악의 이해'가 공개강좌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4기는<인생사용설명서>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홍신 소설가의 첫 시간 특강과 유안진 시인의 '시 속의 삶, 삶 속의 시', 인간문화재 신영희 명창의 '우리음악의 이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의 '세계 음악의 여행-예술체험의 의미' 등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무대예술 이해하기'의 경희대 이영란교수의 예술 강의가 있었으며,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 비뇨기과 이형래 교수의 '건강한 부부생활' 등과 같은 건강 강좌까지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또한 명지대 이태호 교수의 우리 옛 그림인 풍속화에 대한 강의, 국립현대미술관 기혜경 학예연구사의 서양미술사 강의, 이원달 화백의 '왜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의 미술특강도 있어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미술사 강좌도 만날 수 있었다. 문화답사는 수강생과 문화회원 약 80여명이 함께 전라남도 고흥지역을 방문하여 선운사, 고창읍성, 서정주 시문학관을 방문 하였고 알록달록 그림같이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며 문화생과 수강생은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4기 문화대학을 접한 수강생들은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넘어서 생활에 있어서 활기

를 주고 동시에 문학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주고 예술을 감상하는 법을 배워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특히 이번 4기 문화대학은 사색의 계절 가을에 운영된 만큼 예술 감상 강의가 인기를 끌었다. 11월 16일 수료식에는 이원달 문화원장의 "왜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수강생들의 아쉬움을 달렸으며 특강 후에는 수강생들에게 강동문화원 문화대사라는 이름을 주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수료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경문화원

문경소리, 전국에 퍼지다!
문경문화원 문경소리공연단 2009 활동 마무리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이 운영하는 '문경소리공연단(회장 남상순)'의 2009년 활동이 화려한 실적을 거두고, 그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경소리공연단'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지방문화원 거점 어르신 프로젝트인 '어르신문화학교'의 성과로써, 문경의 어르신들이 문경의 민요, 문경주제 가요, 관현악 연주를 중심으로 결성한 공연단이다.

6월 4일부터 시작된 올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배운 문경의 소리를 바탕으로

심화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공연 활동을 통해 문경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으며, 어르신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해왔다. 특히, 12월 13일에는 '강릉 주문진 복어축제'장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쳤고, 12월 15일에는 '제1회 예천아리랑 전국경향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성남문화원

향토유적지 순례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2009년 특색사업으로 마련한, '2009 향토유적지 순례'가 지난 12월 3일 총 9차례로 최종 실시됐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개최되는 이 사업은 '서울일대 유적지 외 전국권 유적지 답사'였다. 성남 문화원 가족이 중심으로 많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제8회, 학술토론회 -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성남문화원이 '평양서윤(平壤庠尹) 김순성(金順誠)묘역의 가치'를 주제로 (제8회, 학술 토론회)가 지난 11월 18일 오후2시 성남문화원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학술회의 개최사에서 한춘섭 원장은 "성남시 건설 초기에 많은 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장시켜, 전통문화의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실례로 태평동의 구 시청 자리에 있던 630여기의 묘소 가운데 정묘호란 때 전사한 충장공 남이흥 장군의 묘소나 영창대군, 제안대군, 명선공주, 명혜공주 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상들의 역사 문화유산이 도시건설의 미명하에 밀려나고 말았다"고 했다.

또한 한원장은 "한 때, 성남시는 문화도 역사도 정체성도 없는 도시라고 인식되었던 때를 생각해, 성남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선도자로서 '내 고장 정체성 찾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춘섭 성남 문화원장의 진행으로 문수진 향토문화연구소장과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손미숙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손환일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좌장 이재범 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5명 토론자들의 열띤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발표회 - 10개 강좌, 200여명 수료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문화학교(교장 안일준)는 2009년도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발표회를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원 3층 전시장에서 개최했다. 가야금반을 비롯, 10개 강좌 15개 반에 200여명이 입학해 운영됐으며, 1부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전달과 표창장 수여가, 2부 졸업 작품 발표회는 가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아금반 '성금연류(산조)', 생활중국어반 '꿈에 이백을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국무용반 '전통 굿거리 춤' 풍물반 '웃다리사물', '삼도사물', 판소리반 '춘향가', 생활영어반 'You raise me up', 한자반 '學道即無着(학도즉무착)', '花石亭(화석정)' 발표와, 한문서예반, 문인화반, 한글서예반 64점의 작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성남문화교회는, 1996년 개설되어 1999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문화학교로 지정됐으며,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의 이해도 제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 향토문화의 주체로서 문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지난 14년간 총 2,531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여, 명실 공히 성남시민들의 평생 문화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평택문화원

국악옛지콘서트



전통문화예술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2009 평택시민을 위한 국악프로젝트 '국악옛지콘서트'가 오는 12월 11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국악옛지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국악을 전통 국악 관현악단을 비롯해 비틀즈 음악과 오페라 공연 등 퓨전 공연과 유명 국악인 김영임이 출연해 공연을 함으로서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악기 이야기'로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국악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지는 본 공연에서는 국악 관현악단의 비틀즈 음악 공연과 탭댄스, 국악가요, 목금 협주곡 등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계획이다. 특히 바리톤 장철준의 오페라와 김영임의 곡은 콘서트의 클라이맥스를 이루었다.

특별 공연으로 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평택의 저녁노을 바라보며 지은 동요 '노을과 캐럴송을 도레미어린이중창단의 맑은 목소리로 합창되었다. 본 공연을 주최한 평택문화원의 오용원 원장은 "이번 공연으로 평소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국악을 우리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통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포천문화원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순회 간담회 개최



경기도 시·군 31개 문화원장 순회 간담회가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포천시청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의 인사, 서장원 포천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의 인사로 진행됐으며,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포천문화원의 현황과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동영상 상영, 그리고 각 시·군 문화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원장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선비의 고장 포천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포천에 대하여 좀더 많이 이해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폐 체석장을 이용하여 야외공연장과 조각공원, 호수가 어우러져 조성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인 포천 '아트밸리'를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타 시·군 문화원장들은 버려진 체석장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감상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009년도 학술연구발표회"를 지난 11월 12일, 포천 유림회관에서 문화원 임·회원, 관내 지도층 인사, 관계 문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구발표회는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를 주제로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의 '농암 김창협 선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장리 연구원의 '강산 이서구 선생 인물 연구', 한림대학교 이경구 교수의 '광암 이벽 선생의 생애와 사상', 등 사학계의 저명한 세 분의 교수가 참여하여 집중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내신 위인,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으로 이러한 선현들의 업적을 좀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계승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동계 포천시 부시장과 이종호 포천시의회회장의 축사로 자리가 한층 더 빛났다. 특히, 포천성당의 배종호 신부 등 성당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학술연구발표회 연구 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 참가자 및 포천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포천을 빛낸 인물에 대한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제4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인협회에서 후원한 제4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가 지난 21일 이종호 포천시의회회장, 이종희 포천문인협회장 등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문화원 임·회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여성회관 만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시가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시낭송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행사로 15팀이 참가하

여 경연을 벌였다.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시를 사랑하는 풍토가 더욱 진작되기를 바란다

경연 결과 신북면에 거주하는 한선희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낭송하여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천시장상과 트로피를 수여 받았으며, 금상은 신북면 조은수님 가족, 은상에는 신읍동 김미현님 가족, 신읍동 연민숙님 가족이, 동상에는 소흘읍 김재원양 가족 등 3가족이 수상했으며, 이의 화목상 2가족, 다복상 3가족, 행복상 3가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9 포천 문화인의 밤 성황리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 10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무의 시점에서 각 분야의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해 온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2009년 문화원 1년을 총결산하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새로이 자문위원에 추대되는 강용범씨, 오석준씨 두 분에 대한 추대패 증정 및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공연 발표, 작품전시회,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문화학교 2009년도 26개과정 수료생 1,200여명에 대한 수료증과 26명에 대한 공로상, 13명에 대한 개근상을 시상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지역문화 발전에 수고하신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하면서 "받아오는 새해에도 모두 함께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효 포천시의회회장의 축사에 이어 가진 문화행사는 축시낭송을 비롯 지난 1년간 포천문화원 문화학교에서 배운 고전강독, 사물놀이, 기타공연, 우리 춤체조, 대금, 가요합창, 가야금병창, 민요, 다문화합창단, 실버뷰전에출단, 벨리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만찬을 가짐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반월아트홀 전시장 1층과 2층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문화학교에서 얻은 마한 꽃꽂이, 시군자, 한국화, 전통 및 현대서각, 소묘수채화, 규방공예, 서예, 전각, 연필파스텔화 등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 자랑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천문화원

제8회 김천민속장기대회 열려

민속장기의 보존, 전승을 위해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제8회김천민속장기대회에서 지례면 관덕리 김일섭씨가 김천장기의 최고수로 등극했다. 지난 25일, 김천문화원이 주관하고 김천시와 김천장기협회의 후원으로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김천민속장기대회에 읍면동에서 추천한 장기고수 57명이 참가해 숨은 장기실력을 겨루었다

대국 결과 김일섭(지례면 관덕리)씨가 1위, 백삼홍(대항면 복전리)씨가 2위, 이희상(갑천면 금송리)씨가 3위를 차지했다.

또 황용모(모암동), 이금구(아포읍 이리), 진환용(대항면 향천리),문정수(아포읍 국사리), 김광(지례면 상부리)씨가 공동4위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대회 참가자중 최고령자인 최용현(아포읍 지리)씨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원주문화원 국제문화교류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 원주문화원은 임원을 대상으로 일본 도토티현 도학구군(日本 鳥取縣 東伯郡)으로 2009년 국제문화교류 의 시간을 가졌다.

도토티현 도학구군 유리하마정의 국제교류협회(會長 畠田和彦)를 방문하여 지역단체 및 문화 기반시설 파악하고 상호 문화교류 도모하였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양해각서 교환 혹은 2010년도 MOU체결 협의, 일본 현지 문화체험을 위한 교도, 오사카일원 문화탐방 실시하였다.

또한 방문국의 자연환경, 정치와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에 대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선행학습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임 과제를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연수로 진행되었다. 분임토의는 4개 분과(사회복지행정, 축제, 평생교육, 전통예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원주문화원의 국제교류는 국외의 문화유적 및 문화단체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문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지역 문화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아직은 국제문화교류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걸음마 단계이지만 2010년부터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문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지역 문화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항상 뒤쫓기만 하던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발전된 문화적 흡수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인식 속에 더 넓게 문화 활동의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 지방문화원 외국(국제) 문화교류 현황

지역	문화원명	교류국가	비고
부산	연제	일본	
인천	연수	중국	
대전	서구	중국	
울산	동구	일본	
	울주	일본	대마도
	남구	일본	
경기	성남	중국	
	과천	일본	
	이천	일본	
강원	동해	중국	
	원주	일본	
충북	충주	중국	
	음성	중국, 일본	
	옥천	중국	
전남	강진	중국	
	영광	중국	
경북	안동	중국	
	김천	일본	
	구미	일본	
	상주	일본	
경남	마산	일본	
	김해	일본	
	남해	일본	

문화역사마을에 체험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MOU체결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는 12월 28일 전국 13개 문화역사마을에 방문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체험학습 전문회사 등 5개업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단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핵심은 참여한 5개 업체와 13개 문화역사마을의 이익이 상호 보장된다는데 있다.

즉 네트워크사업단은 여행상품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체험객 모집, 홍보 등을 통해 각 회사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문화역사마을에서는 네트워크사업단이 모객한 체험객이 마을에서 지출하는 비용(체험비, 숙박비 등)이 마을수입이 된다.

또한 참여업체는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역사마을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 현재 전국에 1,596개소가 지정, 조성되었으며 국비, 지방비 등 약 1조 4,392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 체험마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조성이후 주민소득 증대 등 마을활성화에 성공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문화역사마을도 이러한 비판에 자유롭지는 않다.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문화역사마을이 금년 말로 조성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을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0년 1년동안 마을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체들과 MOU를 맺게 되었다.

※ MOU 참여업체 | (주)드림미즈, (주)투리인 인터내셔널, (주)책교, amPR, (주)홍은세상바라기

2009 찾아가는 어르신문화나눔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다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

올 한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은 문화예술로 모든 이에게 행복을 전하며 소외지역,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나눔' 정책 수행에 앞장섰다. 이는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데에 이바지 한다. 그 중 은퇴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나눔공연 등의 '배품문화' 실천으로, 교육받은 문화예술활동을 스스로 지역사회에 환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어르신문화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총 9개 문화원(동대문, 영등포, 가평, 안산, 정읍, 김제, 목포, 남해, 거제)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문화원이 직접 관내 노인,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통무용, 연주 등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한 해 동안 '어르신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들은 작은 공연에도 크게 감동받고 감사하는 관람자들의 열정에 오히려 스스로 감동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찾아가는 어르신문화나눔은 지역주민과 함께한 '영원한 벗'으로 남아 전국 9개 지역에 그들의 마음이 머물며 그 온기를 차차 더하여 나갈 것이다. 본 공연의 자세한 내용은 2월호에 계속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어르신문화나눔 공연일정

기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남해문화원	동고동락을 외치다	09. 12. 17 (월) 14:00 -, 화양복지원
가계문화원	삼마를 살며 사랑의 몸짓	09. 12. 21 (월) 10:00 -, 솔향 요양원
김제문화원	미술과 함께 신나는 인생만들기	09. 12. 21 (월) 14:00 -, 신세계 요양원
영등포문화원	해아숫아라, 희망의혜아	09. 12. 22 (화) 14:00 -, 문화홀 (근대노인초청)
가평문화원	새싹살버한국무용	09. 12. 22 (화) 14:00 -, 상신노인요양원
정읍문화원	생글 은빛종합연예단	09. 12. 22 (화) 14:00 -, 자재원
동대문문화원	살버중창단 왕연니를럽	09. 12. 24 (목) 14:00 -, 에덴요양원 (삼양주시)
목포문화원	살버 남도소리 공연단	09. 12. 28 (월) 10:30 -, 하나노인복지관
안산문화원	이코디연연주단	09. 12. 28 (월) 14:30 -, 양지홀 양로 - 요양원

'청와대 정책소식' 우수사례로 소개된 부평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은빛여울'

전국 방방곡곡 문화나눔! 문화 소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지난 12월 24일 발행된 '청와대 정책소식 - 제37호(문화편)'는 문화예술 분야의 금년 정부 정책 수행성과를 점검하고 차기년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그 중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지방 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이 소개되었으며, 우수사례로 부평문화원의 '은빛여울'이 게재되었다.

지난 2007년 결성된 부평문화원 실버그림자 인형극단 '은빛여울'은 62세 부터 78세까지 어르신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이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주 발행되는 청와대 정책소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문화원 정책소식

- 문화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하였음을 소개합니다.
-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문화원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문화원 정책소식

문화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하였음을 소개합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문화원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문화정책

문화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하였음을 소개합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문화원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주요 동향 및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11~12월 회장 동정

- 11월 23일 (월) 전남문화원의 날 참석
- 12월 9일 (수) 고창 사등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준공식 참석
- 12월 12일 (토) 동해문화원 2009 종합예술전 참석
- 12월 23일 (수) 안성 덕봉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참석
- 12월 29일 (화) 부산 동구문화원 개원식 참석

문화원이모저모 NEWS



대전 동구문화원에 길공섭(吉工燮) 씨 선임

1946년생
대전동구문화원 부원장
대전사진씨클럽연합회장
아호는 석산(碩山)



울산 남구문화원에 윤성태(尹聖泰) 씨 재선임

1941년생
울산광역시청 부이사관 퇴임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처장 역임
울주문화원 사무국장 역임하였으며,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실무부위원장



강원 평창문화원에 고창식(高昶植) 씨 재선임

1940년생
평창군 문화공보실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기획실장 등 역임,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



경북 청도문화원에 이복수(李福守) 씨 선임

1940년생
풍각우체국장, 청도로타리클럽회장 역임,
아호는 인석(引石).



경북 의성문화원에 허영자(許英子) 씨 선임

1943년생
(현)탄산약수운천 사업본부장,
(현)의성발전협의회 위원.

Good 디자인 + Best 카피

혹시,

홍보인쇄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글쓰는게 걱정되나요?

정기간행물을 만들고 싶어도 팜플렛을 제작하고 싶어도 '글' 이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걱정마십시오.
저희들이 대신 써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더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디자인을 원하시나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글' 이 얘기하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입니다.
몇마디를 하나의 이미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